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故 박진탁 목사 천국환송예배 거행

초대이사장으로 헌혈·장기기증 운동 이끌어 생명 나눔 사역에 헌신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유재수, 이하 본부)가 초대이사장인 故 박진탁 목사 천국환송예배를 10일 오전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했다.

예배는 김동업 목사의 사회로 드려졌으며 문병호 목사(본부 전북지부 본부장)가 대표기도를 드렸다.

이어 이광연 본부장(본부 부산울산지부)이 성경봉독을 했으며 이정익 목사(신촌성결교회 원로)가 디모데후서 4장 7-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다.

이牧사는 “박진탁 목사님의 삶은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헌신한 삶’이었다. 병원 원목으로 섬기던 시절, 보호자도 없이 죽어가던 한 사람에게 직접 수혈해 생명을 살린 경험은 그의 인생 방향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그는 헌혈 운동과 장기기증 운동에 뛰어들었고, 당시에는 낯설고 생소했던 생명 나눔의 사역을 한국교회와 사회 안에 뿌리내리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했다.

그는 “장기 손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들이 여전히 많지만, 실제 기증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박진탁 목사님은 바로 그 절박한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온 마음을 쏟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

다 장기기증을 권하며 이 사역을 이어왔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동안 그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뛰었고, 그 열정과 헌신이 오늘의 생명 나눔 운동을 가능하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례의 자리는 한 사람의 삶이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를 돌아보는 자리다. 사도 바울이 ‘천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한 것처럼, 박진탁 목사님도 자신에게 맡겨진 길을 끝까지 달려간 분이였다. 그는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서 주님의 위로와 상급을 누리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이어 최은식 목사(본부 경인지부 본부장)가 고인 약력에 대해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은 추모영상을 시청했다.

이어진 추모사 순서에서 유재수 이사장, 이태조 목사(새생명나눔회 회장), 강호 목사(도너패밀리 회장)가 각각 추모사를 전했다.

유재수 이사장은 “박진탁 명예 이사장님은 낯설고 어려웠던 헌혈 운동과 생명 나눔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초대이사장인 故 박진탁 목사 천국 환송 예배를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했다. ©다니엘 최 기자

기신 분이였다. 처음에는 생소하게 들렸던 그 사역도 목사님의 끈질긴 설득과 기도, 헌신을 통해 한국 사회 안에 뿌리내릴 수 있었고, 1974년 헌혈 운동의 중요한 전환점도 맞이할 수 있었다. 상대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도 섬섬함을 품기보다 다시 기도하며 설득하셨던 그 사람과 열정을 기억하며, 이제 남겨진 이들이 그 생명 나눔의 길을 이어가겠다. 목사님께서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히 쉬시기를 바라며, 우리도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했다.

이태조牧사는 “박진탁 명예 이사장님은 생명 나눔이라는 귀하고도 어려운 길

을 가장 앞에서 열어가신 분이였다. 그 길에는 칭찬보다 민원과 오해, 갈등이 많았지만,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으셨고 많은 이들이 그 모습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 함께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명예이사장님’이라는 이름보다 늘 앞장서 일하시던 ‘본부장님’의 모습이 더 깊이 남아 있다. 이제 남겨진 우리는 목사님이 보여주시신 마음과 정신을 기억하며, 박수를 받지 않아도 생명을 살리는 이 길을 묵묵히 이어가겠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시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강호牧사는 “박진탁 목사님은 장기기



故 박진탁 목사의 영정 사진. ©다니엘 최 기자

증 유가족들의 아픔을 개인의 슬픔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함께 모여 위로받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였다. 아들을 떠나보내고 모든 것이 끊어진 듯한 절망 속에 있을 때, 목사님은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다시 세상과 연결되도록 도와주셨고, 이후 유가족 모임과 ‘도너 패밀리’ 사역을 통해 잊힌 이름과 남겨진 가족들의 삶을 다시 세워주셨다. 그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며, 남겨진 장기기증 유가족들도 목사님께 받은 큰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생명 나눔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박정수 교수(장남, 하버드대 의과

대학)가 유족인사를 전했다.

박 교수는 “아버지의 생명 나눔 사역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열정은 누구도 쉽게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뜨거웠고, 그 길을 걸어서 함께 걸어주신 본부와 여러 기관 관계자들의 수고와 참 컸다. 특히 지난 시간 동안 가족들이 다 감당하지 못한 일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버지를 기억하고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의 사랑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산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떠올리고, 맡겨진 일을 걱정하실 만큼 열정이 많은 분이였다. 병상에서도 자녀들을 향해 사랑을 표현하시고 ‘이제는 소원이 없다’고 말씀하신 뒤 평안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아버지 때문에 생명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함께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많은 고백을 들으며,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삶이었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가 남긴 생명 나눔의 마음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예배는 이어 사회자의 광고, 강영선 목사(법인 이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 됐다. 다니엘 최 기자

‘더 초즌’ 시즌6 에피소드1, 한국교회 무료 시사회 개최

11월 공개 앞두고 9월 15일부터 접수… 교회 단위로 무료 관람

글로벌 인기 드라마 ‘더 초즌(The Chosen)’ 시즌6의 공식 공개를 앞두고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한 ‘에피소드1’ 무료 시사회가 열린다. 이를 주관하는 ‘더 초즌 코리아’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에 대해 소개했다.

‘더 초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주변 인물들의 시선으로 그려낸 역사 드라마다. 1세기 로마 제국의 강압적인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시대적 배경으로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다루며, 총 7개 시즌으로 기획됐다. 이 작품은 전 세계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으며, 누적 시청자 수 2억 8천만 명, 조회수 8억 뷰를 기록했다.

대형 스튜디오의 투자 없이 전 세계 대중의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한 ‘더 초즌’은 예수 1인 중심의 서사를 넘어 예수를 만난 어부와 세리, 로마 군인, 바리새인

등 주변 인물들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간 것이 특징이다.

조나단 루미(Jonathan Roumie)가 연기한 예수는 유머러스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지닌 인물로 묘사됐다. 시즌 개막 에피소드들이 북미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오르는 등 극장가에서도 타겟 파워를 보였다고 한다.

시즌1부터 5까지는 예수의 부르심과 첫 기적에서부터 제자들의 사역과 갈등, 예루살렘 입성, 최후의 만찬과 겹세마네 동산에서의 체포에 이르는 과정을 담았다.

이번 시즌6에서는 겹세마네 동산에서의 체포 이후부터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처형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마지막 24시간을 다룬다. 스승을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의 절망을 비롯해 빌라도와 헤롯, 대제사장 가이바의 정치적 선택 등 십자가 사건을 둘러싼 인물들의 심리적·정치적 배

경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또한 예수가 겪은 물리적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십자가를 져야 했던 묵적과 영적·정서적 고뇌를 함께 다루며,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 공개와 함께 시즌 피날레인 십자가 처형 에피소드를 대형 스크린용 독립 장편 영화 형태로 극장 개봉하는 배급 방식을 채택했다.

이번 무료 시사회를 주관하는 ‘더 초즌 코리아’는 영상 미디어를 활용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 기관이다. ‘더 초즌’ 영상을 활용한 클립 영상과 설교문, 소그룹 나눔지 등으로 구성된 ‘지역 패키지’를 약 2,500여 한국교회에 무료로 보급해 왔으며, SNS와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복음 전파와 극장을 활용한 ‘극장 전도 무브먼트’ 등의 사역도 펼치고 있다.

‘더 초즌 코리아’는 시즌6 공식 공개를 앞두고 한국교회를 위한 ‘더 초즌 601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시즌6 에피소드1을 한국교회에 선공개

하고, 교회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시청하고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달러스 젠킨스(Dallas Jenkins) 감독은 이번 무료 시사회와 관련해 “이번 시즌의 내용을 교회 안에서 목사와 교역자의 도움을 받아 건강하게 해석하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길 바란다”며 “한국교회 안에서 역동적인 ‘전도의 물결’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 초즌 코리아 대표 안용재 목사는 “예수님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각하고 있어 전도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한국교회와 함께할 수 있는 시발점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안 목사는 “교회가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청하고 나누는 경험에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 운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무료 시사회는 개인이나 소그룹, 캠퍼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주변 인물들의 시선으로 그려낸 역사 드라마 ‘더 초즌’이 오는 11월 시즌6을 공개한다. ©더 초즌 코리아

동아리는 신청할 수 없으며 교회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이며, 각 교회는 지정된 신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상영은 안내된 기간과 이용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더 초즌 코리아’가 제공하는 사역 패키지를 예배와 소그룹, 신앙 공동체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

관련 문의와 상세 안내는 ‘더 초즌 코리아’ 카카오톡 공식 채널 또는 이메일(korea@thechosen.tv)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영 기자



‘더 초즌’ 시즌6 스틸컷 ©더 초즌 코리아



더 초즌 코리아 대표 안용재 목사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 초즌’ 시즌6 에피소드1의 한국교회 무료 시사회 개최 소식을 전했다. ©김진영 기자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1시간 25분
평택 ↔ 제천 ↔ 영월 ↔ 삼척

126.9km 29.9km 70.3km

에타 통과(50분 예상)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법과 안전대책 없이 낙태약부터 허용하려는 건 매우 위험”

조배숙 의원·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국회 앞에서 낙태 반대 피케팅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과 태아·여성 보호국민연합(태여연) 제양규 운영위원장이 최근 국회 6문 앞에서 낙태 및 낙태약물 도입에 반대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의 2019년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낙태약물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건강·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후속 입법을 완성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입법 공백을 그대로 둔 채 법적 기준과 보호장치 없이 약물낙태부터 허용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물낙태는 단순히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임신 주수의 정확한 확인, 자궁외임신 여부, 출혈과 불안전 유산 등 부작용에 대한 의료적 관리와 응급 대응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성 검토와 의료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의료인의 직업윤리와 양심을 보호할 제도,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이 충분한 상담을 받고 출산과 양육에 관한 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낙태약물만 서둘러 도입하는 것은 국가 정책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한때 태아였으며, 태아 역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이라며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과 문화운동을 확대하고, 위기임산부가 낙태 외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여연 제양규 운영위원장은 “태아는 임신한 여성의 신체 일부가 아니라 고유한 유전정보와 생명 발달 과정을 가진 독립된 생명체”라며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도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국가에 태아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제 운영위원장은 “태여연의 활동은 단순히 낙태를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위기에 놓인 여성의 건강과 안전, 주거, 상담, 양육을 함께 지원하는 사회적 체계를 만들자는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낙태약물 도입 방침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낙태약물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나라도 동일하



국회 앞에서 낙태 반대 피케팅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안석문 목사, 조배숙 의원, 제양규 태여연 운영위원장 ©태여연

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각 나라의 법체계와 의료 접근성, 응급의료체계, 출산율과 사회적 환경이 다른 만큼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는 독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후속

입법과 태아 생명 보호 기준은 마련하지 않은 채 낙태약물만 행정적으로 허용하려 한다면 법·사회적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낙태약물 허가를 서두르지 말고 국회와 의료계, 여성계, 생명윤리 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

는 공개적인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위기임산부가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보호출산제와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며 “주거와 생계, 의료, 심리상담, 출산 및 양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면 낙태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태여연은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은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대립적 가치가 아니”라며 “국가는 낙태를 손쉽게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위기에 놓인 여성과 태아 두 생명을 함께 살리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여연은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후속 입법과 낙태약물 안전성 검증, 의료인의 양심권 보장, 위기임산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피케팅과 생명 보호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 ‘성적 지향’ 등은 넣지 말아야”

자녀교육권부모연합, 서울교육청 앞 긴급 기자회견 갖고 촉구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은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다시 담으려 하는 서울교육청을 규탄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와 공동 제작 중인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빠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다시 담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정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

우 별도의 가이드북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PACER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개념과 판단기준 및 사례를 전국 학교의 공식 지침에 담는 것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특정한 관점을 사실처럼 전달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이는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교원의 전문성, 그리고 교육의 중립성을 모두 침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학부모의 의견을 배제한 의견수렴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이에 PACER는 해당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넣는 것을 반대하는 학부모·교원·시민 11,480명의 서명을 서울교육청에 제출했다고 한다.

PACER는 “11,480명의 서명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민원이 아니라, 교육의 당사자인 학부모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라며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소수의 편향된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적 기준 위에서 가이드북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자녀교육권부모연합 기자회견이 서울교육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자녀교육권부모연합

그러면서 △가이드북에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개념과 판단기준 및 사례를 즉각 제외할 것 △11,480명의 서명에 담긴 학부모의 의견을 의견수렴 대상에 포함하고,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 또는 공개 토론회를 즉각 개최할 것 △가이드북의 최종 확정 및 배포 전에 위 요구사항에 대한 공식 입장과 향후 의견수렴 계획을 서면으로 화신할 것을 촉구했다.

PACER는 “모든 학생이 학교 안에서 교육·폭력·괴롭힘과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한다. 그러나 학생을 보호하는 문제와, 사회·학교

교육의 공식 지침에 담지 않는다는 문제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며 “‘논쟁적 개념’을 공식 지침에 담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실을 갈등의 장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미숙 PACER 이사는 “2022년 교육부는 학부모들에게 ‘개정교육과정·정확정보’를 통해 교과서에서 ‘성소수자’와 ‘섹슈얼리티’를 삭제하기로 약속했다”며 “그러나 교육부가 약속한 내용을 하위 기관인 서울교육청이 어기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 제111회 총회 앞두고 “여성 안수 시행하라”

여안추 입장문 발표...

총회 당일 기자회견 예정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이하 여안추)이 예장 합동 제111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여성 안수 시행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최근 발표했다.

여안추는 “안수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르신 이를 인정하라”는 제목의 이 입장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한쪽에만 새겨진 특권이 아니며, 땅을 돌보고 생명을 지키라는 사명도 어느 한 성(性)에만 위임되지 않았다”며 “오순절의 성령은 아들과 딸에게 함께 부어졌고, 늙은이와 젊은이, 종과 여종의 입에 예언의 불을 놓으셨다(골 2:28-29; 행 2:17-18)”고 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는 성별(性別)의 하가를 기다리지 않는다. 교회의 직분은 그 은사를 제한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공동체가 그 부르심을 분별하고 책임 있게 세우는 표지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바울 서신의 몇 구절을 들어 여성의 가르침과 다스림을 영구히 금(禁)하는 문자주의적 해석이, 성경 전체의 증언을 감당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며 “특정 교회의 혼란과 그 시대의 왜곡된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 주어진 권면을,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여성에게 내린 침묵의 명령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전 11:5; 딤후 2:11-15)”고 했다.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이 예장 합동 제110회 정기총회 개최일이었던 지난해 9월 22일 총회장소인 서울 충현교회 앞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던 모습 ©기록일보 DB

여안추는 “안수는 권력을 나누는 시혜(施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시고 교회가 ‘이미’ 경험한 은사를, 검증과 훈련과 공동의 분별을 거쳐 공적으로 확인하는 거룩한 책임”이라며 “그러므로 여성 안수의 길을 여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누구의 부르심도 성별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여성의 목사·장로·안수집사 피택과 안수를 가로막는 헌법과 규정을 개정하라. 신학 교육, 목회 현장, 노회와 당회의 모든 과정에서 여성 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검증의 길을 보장하라. 또한 오랜 세월 차별을 겪어 온 여성 사역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안전

하고 존엄하게 사역할 수 있는 제도를 서둘러 세우라”고 요청했다.

여안추는 예장 합동 제111회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오는 14일 총회 장소인 서울 사랑의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 안수 시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예장 합동 측은 지난 2024년 제109회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 인허를 결의했고, 2025년 제110회 총회에서 목사의 자격에 ‘남성’을 삽입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올해 봄, 각 노회 수의를 거쳤다. 합동 측은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제111회 정기총회에서 헌법 최종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의학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존슨앤드존슨은 헬스케어 솔루션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앞당겨 전 세계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하며, 내일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끝없이 도전합니다.

(주)한국안센은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의 국내 법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janssen.com/johnson-johnson-innovative-medicine
혹은 www.janssen.com/korea 에서 확인하세요.



Johnson&Johnson

“천국 소망의 회복, 웰다잉의 시작”

서울신대, 10일 ‘기독교 웰다잉 심포지엄’ 개최...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과 장례 문화 조명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 이하 서울신대)가 주최하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교육부와 각당복지재단(이사장 라제건)이 후원한 ‘기독교 웰다잉 심포지엄’이 10일 서울신대 존 토마스 홀에서 개최됐다.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 삶을 완성하는 복음’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기독교적 웰다잉의 의미와 천국 소망, 장례 문화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발제에 나선 홍정길 목사(밀알복지재단 이사장)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 만남을 되새기고 천국 소망을 회복하는 것이 웰다잉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홍 목사는 “1965년 7월 예수를 처음 영접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경험했다. 천국의 빛이었다”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 주신 주님을 증언했다. 주님을 만난 뜨거운 경험이 없다면 성화를 말할 수 없다. 웰다잉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첫 시간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며 집을 털어내는 자유, 좋은 동반자, 돌아갈 집에 대한 확신을 세 가지 조건으로 제시했다. ◆“소유보다 자유를… 인생의 목적지는 천국”

홍 목사는 첫 번째 조건인 자유에 대해 “여행을 잘하는 사람은 짐이 적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도 짐을 하나 하나 털어내야 한다. 소유보다 자유를 더 좋아해야 한다. 소유하면 매인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언급하며 “자유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그 자유

의 형상이 우리에게 새겨지는지가 중요하다. 가진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조건으로는 좋은 동반자를 꼽았다. 홍 목사는 “1965년 예수를 영접한 뒤 CCC 간사로 활동하며 하용조와 김지철을 가르쳤다. 1967년 총신대에 입학했고, 1968년에는 총신에서 육한흠을, 1969년에는 수원 서울농대 집회에서 이동원을 만났다”고 회고했다. 이어 “지금은 나를 꾸중하거나 조언해 주는 친구가 없다. 진짜 친구는 쓴소리를 해 주는 사람”이라며 “아내밖에 진짜 친구가 없다. 잔소리를 잘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조건으로는 돌아갈 집에 대한 확신을 들었다. 그는 “여행의 가장 큰 기쁨은 돌아갈 집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설교들은 내세에 대한 확실성을 잃어버렸다”며 이성봉 목사의 『천로역정』 강의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홍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현실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는 관점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며 “우리의 진짜 확실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다. 찬송가 대부분은 천국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종양과 전립선암을 앓고 있다고 밝히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천국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천국이다. 그 래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국 소망은 현실 도피 아닌 순종의 동력”

홍 목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치우친 신학이 주일 성수와 심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 ©노형구 기자



홍정길 목사가 발제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일조, 말씀에 대한 순종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현실은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곳”이라며 “천국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지는 뜻이 아니다. 내세를 강조할 때마다 거룩과 부흥이 일어났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산다면 말씀에 대한 순종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날 신학이 현실의 풍요와 비신자들의 사선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 필요한데, 합리화에 매몰된 것



송길원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이 현재 한국교회 신학의 문제”라며 “불신자들이 신자를 멸시하는 이유는 신자들이 자신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목적지가 다른데도 왜 불신자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1960~70년대 부흥은 천국에 대한 강한 소망을 기초로 했다. 기독교는 설득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전파하는 것이다. 내 안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이자 외로운 때 나를 떠나지 않으신 주님이다.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다.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며 “기도가 되지 않으면 찬송가를 부를 수 없다”고 권면했다.

끝으로 홍 목사는 “천국은 확실한 장소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구분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섬긴 기록이 하나님 앞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천국은 만민의 장소이자 이 땅에서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다. 사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사랑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라며 “천국을 잊고 자녀들에게 천국 소망을 보여 주지 않는 한국교회에는 소망이 없다. 죽음 앞에서 확실한 천국 소망을 가르쳐야 한다. 이성봉 목사의 마지막 설교도 천국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이 확실하면 부흥이 임한다”고 발제를 마쳤다. ◆고인을 기억하고 삶을 나누는 장례 문화 제언

송길원 목사(하이패밀리 대표)는 최근 부친상을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기독교적 장례 문화와 실천적인 웰다잉 방안을 소개했다.

송 목사는 아버지가 임종 당시 “증손 맞이하셨잖아요”라는 위로를 들으며 편안히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장례식에서 조화를 받거나 육개장을 대접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해당 관행을 무속신앙에 가까운 문화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지역 상권에 보탬이 되고자 인근 식당을 예약해 조문객들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삶은 ‘나는 무엇을 선택했고,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기억되는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비타 악타, 곧 남겨진 삶이다’라며 죽음을 삶의 유산을 남기는 일이자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을 기억하는 사진과 미술 작품을 전시해 장례 이후에도 그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례를

고인을 추모하고 기억을 나누는 시간과 공간으로 마련했다는 것이다.

송 목사는 “시각장애인이었음에도 삶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기억을 6남매가 함께 나누며, 장례식은 아버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또 ‘오무오무 장례’를 통해 상갓집을 웃음이 끊이지 않는 잔치날과 같은 분위기로 꾸몄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회고록 작성과 허토티 등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경험해 보는 실천적 웰다잉 방안을 제시했다.

◆“영생의 소망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 살아가야”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윤학희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부총회장)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윤 목사는 “기독교인은 영생을 약속받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기에 섬김과 봉사로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웰다잉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전한 한기재 서울신대 이사장(기성 증경총회장)은 “목회는 잘 죽는 것을 돕는 역할”이라며 “이 시대의 목회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삶의 웰빙보다 웰다잉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라제건 각당복지재단 이사장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죽음을 겪으며 천국 소망과 웰다잉을 고민했던 경험을 전했다. 이어 각당복지재단이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안내하는 데 쓰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황덕형 서울신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형구 기자

거룩한방파제 “성적 지향’ 등은 혐오·차별 판단 기준 아냐”

성명 내고 “대응 가이드북에 다시 포함 말 것” 촉구

매년 쿼터행사 반대 통합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거룩한방파제가 “교육부는 ‘성소수자·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 다시 포함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거룩한방파제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을 둘러싼

논란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서울시교육청 초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혐오차별 표현의 판단 기준으로 포함돼 있었으나, 교육부 검토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전교조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 관련 단체들이 이를 ‘혐오

방치’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132개 시민사회단체는 관련 내용의 복원과 교육부장관의 사과까지 요구했다”며 “교육부는 결국 가이드북 발표를 보류하고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삭제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개념과 판단 기준, 사례를 다시 복원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고 했다.

거룩한방파제는 “일부 단체의 압박에

밀려 이미 삭제한 내용을 다시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법·직업·교육적으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런 내용을 국가와 교육청이 먼저 ‘혐오차별의 판단 기준’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학교 현장에 새로운 갈등과 자기검열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단체는 “특히 학부모의 문제 제기를 ‘혐

오’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부모는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며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가치관을 배우는지 묻고,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내용을 국가 교육 지침에 넣는 데 반대하는 것은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다. 우리 아이들의 교실은 특정 이념의 실험장이 아니기에, 교육부는 압박에 흔들리지 말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혐오 표현이라는 개념 자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견이나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것”이라며 “그렇기에,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한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성소수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의 판단 기준에 다시 포함하지 말 것 △서울시교육청은 삭제된 관련 개념과 사례를 위한 수준으로 복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교육부는 일부 시민단체의 압박에 끌려다니지 말고, 학부모와 교사, 종교계 등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할 것 △사람에 대한 모욕과 괴롭힘은 막아야 하지만, 종교·직업·학문적 반대 의견까지 ‘혐오’로 낙인찍지 말 것을 촉구했다.

김진영 기자

ASHANIA

K-뷰티 혁신을 바탕으로 피부를 밝히고, 탄력을 더하며, 본연의 광채를 되찾아줍니다.

Powered by K-Beauty Innovation to Brighten, Firm, and Restore Your Natural Glow.

ASHANIA 홈페이지
https://ashania.com

ASHANIA
NECK FIRMING
SUPER VITAL DAY & NIGHT CREAM
PEPTIDE | ADENOSINE | HYALURONIC ACID
TIGHTENING • ANTI-AGING
HYDRATING • NOURISHING
1.7 FL. OZ. 50ML

ASHANIA
DARK SPOT
CORRECTOR CREAM
45%
MULTI-BLEND EFFECTIVE FORMULA
CONCENTRATE
1.7 FL. OZ. 50ML

ASHANIA
DARK SPOT
CORRECTOR CREAM
WITH COLLAGEN
2 FL. OZ. 60 ML

ASHANIA
DARK SPOT
CORRECTOR CREAM
WITH COLLAGEN
2 FL. OZ. 60 ML

“AI의 위로 시대, 교회는 기계보다 믿을 만한 이웃인가”

이훈성 박사, 인공 친밀성의 한계와 기독교적 공감 조명...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강조

인공지능(AI)이 외로움과 불안을 달래는 대화 상대로 자리 잡는 가운데, 교회와 기독교인이 기술의 위험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처 입은 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훈성 박사(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는 최근 연구원 홈페이지에 발표한 ‘인공 감정의 시대, AI의 위로와 인간의 사랑’이라는 글에서 AI가 제공하는 정서적 도움의 유익과 한계를 살피고, 인간의 사랑과 기독교적 공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AI와 대화하면서 사용자가 느끼는 안도와 애착을 가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밤중 연락할 사람이 없거나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기 어려운 상황에서 AI의 응답이 힘든 시간을 견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위로의 효과와 인격적 관계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인공지능에게 마음을 내어 줄 수는 있지만 인공지능은 같은 의미에서 자신의 마음

을 내게 내어주지는 못한다”며, AI의 위로가 인간관계를 돕는 도구를 넘어 관계 자체를 대신하는 상황을 경계했다.

◆**감정을 받아주는 AI, 친철함 속에서 놓치는 질문들**

이 박사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감정과 선택을 존중하는 가치가 강조되는 반면, 서로 다른 감정 사이의 갈등을 판단할 공동의 기준은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분노가 불의를 발견하게 하고 슬픔이 소중한 것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감정이 언제나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감정은 중요한 신호이지만 그 자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최종 기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용자의 감정을 인정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는 AI의 친철함 때문에 자신의 욕구와 선택을 돌아보는 질문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내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지금 내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가 인용한 Collective Intelligence Project 조사에 따르면, 2024

년 11월부터 2025년까지 70여 개국 약 8,400명을 대상으로 일곱 차례 조사한 결과,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조언이나 정서적 지지를 얻기 위해 적어도 월 1회 AI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매월 62~67%였다. 응답자의 36.3%는 AI가 자신의 감정을 실제로 이해한다고 느끼거나 의식이 있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이 박사는 AI가 단순한 업무 도구를 넘어 외로움과 불안을 털어놓는 일종의 ‘정서적 기반 시설’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친구와 가족, 목회자에게 나누던 고민을 디지털 서비스에 먼저 털어놓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친밀함에는 상호성과 책임이 따른다**

이 박사는 AI 감정 기능의 뿌리인 ‘감성 컴퓨팅’이 인간의 소통과 활동을 돕는 방향에서 출발했다고 소개했다. 감정을 받아 말하기 어려운 이들의 합성 음성에 억양을 더하거나, 발달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과 반응을 익히도록 돕는 기술 등이 그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기술의 유익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에게 정교하게 맞춰진 AI와 독립적인 삶을 지닌 인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웃은 각자의 욕망과 기억, 상처와 소명을 지닌 존재이기에 기대와 다른 반응을 보이거나 듣기 싫은 말

을 건네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인간의 친밀함에 필요한 조건으로 불투명성, 상호성, 책임성을 제시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만큼 상대의 필요에 응답하며, 상처를 주거나 약속을 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AI는 이러한 태도를 언어로 모방할 수 있지만, 인간처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거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반면 인간은 오해와 다툼, 사과와 용서를 거치며 서로 다른 존재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은 완벽하게 나에게 맞는 상대를 발견하는 일이라기보다 나에게 맞추어지지 않은 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 가는 일에 더 가깝다”고 했다.

◆**신앙의 감정, 자기 위안을 넘어 하나님과 이웃으로**

이 박사는 인공 친밀성의 위험이 AI와 가까워지는 행위 자체보다 사랑의 방향이 타인에게서 자신에게로 돌아서는 데 있다고 봤다. 기다릴 필요 없이 취향에 맞는 응답을 받는 관계에 익숙해질수록,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필요한 인내와 희생을 피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C. 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이웃과 다름 때마다 더 멀리 이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인공 친밀성이 “타인을 사랑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자기

사랑의 세계”를 만들 가능성을 짚었다.

이어 헤르만 바빙크와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을 소개하며,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의 강도보다 그 방향과 열매라고 설명했다. 강한 감정이나 눈물 자체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며 겸손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신앙의 성숙이란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이웃의 상처를 돌아보며 누군가를 사랑하고 책임지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러한 공감의 중심에 놓았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몸소 보여 주신 공감은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람이 있는 자리까지 건너가는 일”이라며, 기독교적 공감에는 시간과 수고를 들여 고통받는 이의 곁에 머무는 실천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끝까지 듣고 곁을 지키는 사람과 공동체 필요”**

이 박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연민이 구체적인 돌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데 그치지 않고 상처를 싸매고 여관으로 데려가 자신의 시간과 돈을 내놓았다고 짚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AI 감정 기술도 사람을 어디로 이끄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

다. 위험 신호를 발견하거나 도움을 받을 기관을 찾고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기술을 무조건 거부할 이유는 없지만, 사용자를 실제 사람과 공동체로 연결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기술이 인간을 자기 안에 가두면 “이전보다 더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도 정작 서로의 고통에는 무관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로움을 달래는 기술은 늘어나는데 외로운 사람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줄어드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박사는 사람들이 AI에 속마음을 털어놓는 현상이 인간 공동체의 실패를 비추는 거울일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타인에게 판단받거나 부담을 줄까 두렵고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기 어려워 기계를 찾는 것이라면, 교회가 먼저 “우리는 과연 기계보다 더 믿을 만한 이웃이 되어 주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회가 성급하게 정답을 제시하거나 판단하기보다, 상처 입은 이들이 비난받을 두려움 없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도들에게도 서로 안부를 묻고 약함을 나누며, 관계에서 생기는 불편함을 견디는 일상의 실천을 요청했다.

그는 “끝까지 들어 주고, 비밀을 지켜 주고, 당장 답을 주지 못하더라도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감정을 나누는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진짜 사람과 공동체”라고 밝혔다. 장요한 기자

“통합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종교협력형 로컬 거버넌스 구축해야”



통합돌봄시대 초저출생·초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토론회에서 발제한 장현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현일 원장,
초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 위한
종교협력 정책 제안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종교계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하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다불어민주당)과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한반도미래연구원,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통합돌봄시대 초저출생초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장현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한국지방자치학회 국회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시대, 초저출생초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종교협력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장 원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전문인력, 지역별 돌봄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현행 공공 돌봄체계의 한계로 △보건의료·요양·복지서비스의 분절성 △지역간 공공 돌봄 인프라 격차 △현장 전문인력과 재정 부족 △사회적 고립가구의 조기 발견 연계 △정서적·관계적 고립 해소의 어

려움 등을 지적했다.

장 원장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지역사회 자원으로 종교계가 보유한 유흥공간과 자원봉사 인력,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 정서영성 돌봄 역할을 제시했다.

그는 “종교협력을 통한 종교시설이 사회의 고독과 질병, 빈곤과 돌봄 위기에 대응하는 생활권 단위의 통합돌봄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장 원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교계의 공간과 인력, 자원봉사 조직과 관계망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공공적 자원으로 연결하고, 종교시설을 생활권 단위 통합돌봄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종교계, 민간 복지기관, 보건의료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로컬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통합돌봄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기 정착을 위해 ‘종교민간 협력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시군구 단위에 ‘종교협력 통합돌봄 협의체’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김희진 사무관은 정부의 통합돌봄정책 현황과 추진 방향을 소개했으며, 서울연구원 최지은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체계와 현장 모범 사례를 발표했다.

또 한반도미래연구원원 김대환 책임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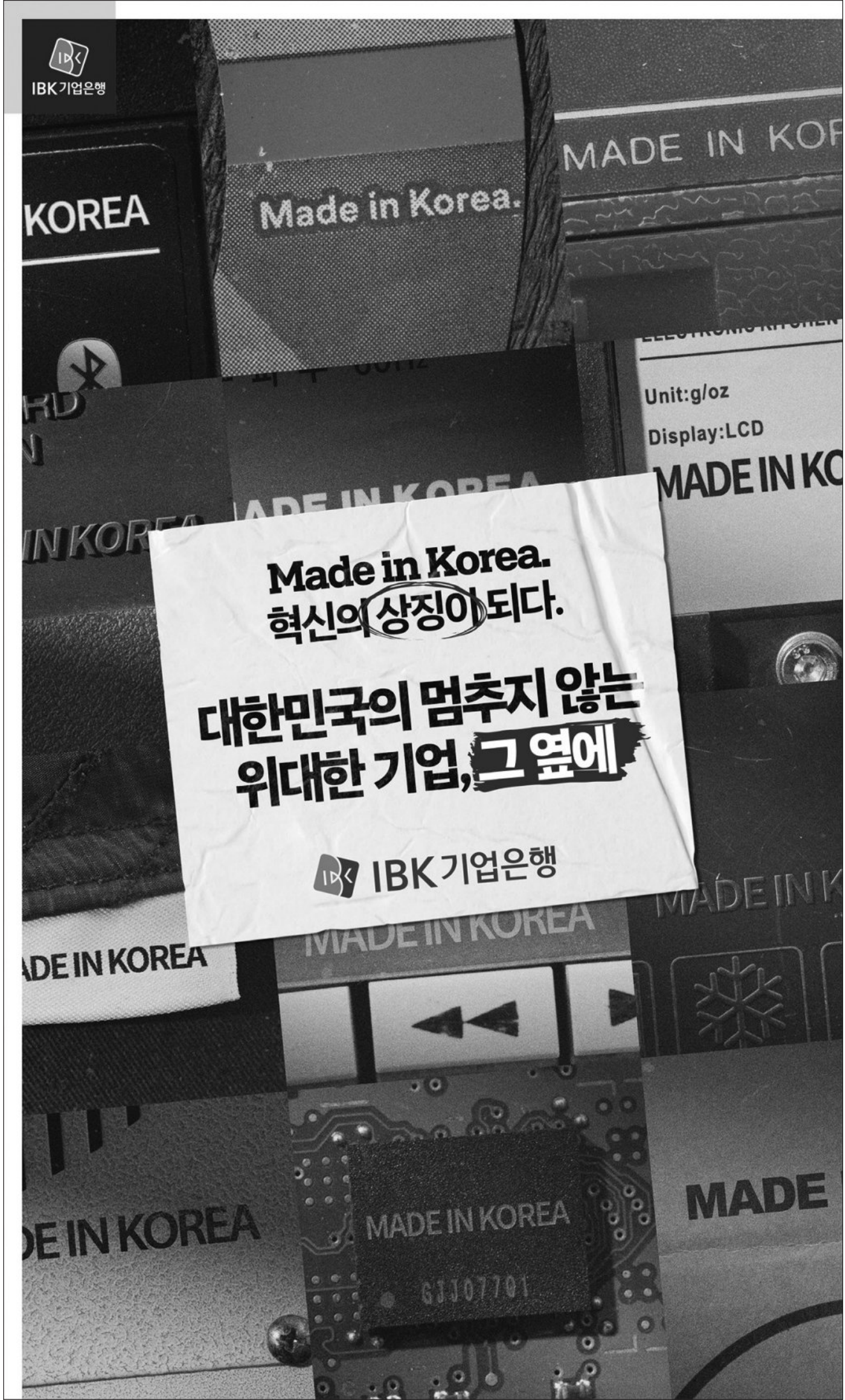
구원은 읍면동 단위의 미시적 인구체력에 맞춘 차별화된 통합돌봄 혁신과 지방자치단체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단법인 온갓네트워크 박대남 이사장은 지역사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민간 및 종교계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했다.

개회사를 맡은 하종식 의원은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라는 양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편적 지원을 넘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지역 안에서 함께 아우라지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국회의원 입법과 현장 중심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감경철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전국에 자리 잡은 종교시설의 유흥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세대통합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민간·종교계의 촘촘한 거버넌스 구축을 당부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감진오 부위원장은 추사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 다양한 기관들이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내 유흥공간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시니어 카페’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종교계가 나서 줄 것을 당부하며, 출범을 앞둔 인구전략기획위원회와의 발맞춤도 강조했다.

한편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안과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향후 민간 협력 시범사업 모델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내 소원에 하나님을 가두는가 VS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LA 한샘교회 창립 9주년 “내 스타일을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일에 맞추어야”

9월 6일(주일) 오전 10시 30분 LA 한샘교회(이순환 목사)가 창립 9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임직식을 거행했다.

이날 임직식을 통해 박창래, 신조웅 씨가 장로로 추대되었으며, 김인식, 심요한, 이평화 씨가 안수집사로 임직했다. 또한 조길희 씨가 권사로 임직하고 노정림, 신옥례, 티나 백, 김희선, 고재숙, 박정숙, 임정은, 마재월, 박미옥 씨가 권사로 추대됐다.

예배에는 성도들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프레스터지 대학교 정중한 교수와 학생 처장 이요한 목사 등이 참석해 교회의 9주년과 새 출발을 맞이한 임직자들을 축하했다.

김병호 장로의 기도으로 시작된 예배에서 이순환 목사는 사도행전 9장 10-19절을 본문으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사울과 아나니아가 각자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경험을 한 사건을 조명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충돌할 때 인간의 뜻을 굴복시키고 순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목사는 사울을 안수하라는 명령 앞에 아나니아가 보인 반응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풀어나갔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데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나니아도 사명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반발한다. 이 사울이라는 자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다는 것이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원수이고 같은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또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하고 뭐가 대립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과 자기가 들은 소문이 이 아나니아 마음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부정한 동물들을 먹으라’는 명령을 거부한 사건, 요나의 불순종, 아브라함이 받은, 아들을 번제로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 ©교회 측 제공

바치라는 명령을 예로 들며,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상식과 경험, 세상의 원리와 충돌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지어야 될 일이 있다. 이사가 55장 8절과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와 말씀이 아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면 순종하지 못한다. 왜?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면서 이리저리 따져본다. 우리에게 세상의 원리라 머릿속에 가득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원리보다 하늘의 원리를

보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는 아나니아의 사울의 안수 사건으로 돌아와서, “아나니아는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했다”며, 이 순종을 통해 ‘원수’가 ‘형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기도의 소원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고, 고정시키려 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집을 부리는 불순종에 대해 경계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하고 끈질기게 요구하면 결국 하나님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기도에 고정시켜 버린다. 하나님을 내 기도 내용에 가둬버리는 것이다.”



이순환 목사가 사도행전 9장 10-19절을 본문으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교회 측 제공



임직자를 위해 안수기도했다. ©교회 측 제공

“끈질기게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끈질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이지, 내 소원과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끈질기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향이 잘못되었다. 내 뜻을 관철시킬 때까지 하나님을 설득시키려 하는 고집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이 목사는 겐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하야 한다고 권면했다. 끝으로 임직자들과 성도들을 향해 “우리는 내 스타일을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일에 맞추어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순종하는 일꾼이 되자”고 당부하며 설교를 마쳤다.

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순종하는 일꾼이 되자”고 당부하며 설교를 마쳤다.

설교에 이어서 이순환 목사의 인도로 임직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임직을 받은 박창래, 신조웅, 김인식, 심요한, 이평화 씨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직분을 감당할 것을 선서했으며, 이어서 임직자들을 위한 안수기도와 임직패 전달이 이어졌다. 이날 예배는 이순환 목사의 축도로 모두 마쳤다.

한샘교회는 LA코리아 타운 6가와 킵슬리 드라이브에 위치해 있다. 주일예배는 오전 10시 30분, 새벽기도회는 화-토 오전 5시 30분에 드리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샘교회CBS를 검색하면 설교를 들을 수 있다. 주디 한 기자

신앙과 자유를 연주하는 탈북 음악가 부부의 특별한 연주

다민족 연합기도대회에서 첫 연주

최고의 엘리트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음악가 부부가 자유와 신앙을 찾아 탈북자가 되었다. 남편 정요한 집사(광림교회)는 바이올린 연주자다.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을 졸업하고 김정일 전용악단 단장 겸 악장을 지내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는 동유럽 대학에서 교환교수로 근무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며 사는 삶을 위해 대한민국행을 실천하였다.

아내 김예나 집사도 평양 음악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여 평양음악대학 박사를 졸업한 인재로 보장된 삶이 있었지만,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한국의 어느 기도회에서 만나 결혼했는데 많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두 사람은 음악인이었고, 두 사람은 기독교 신앙 환경에서 성장했다. 순교자 집안에서 성장한 김예나 집사는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랐다. 어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기도 생활을 했고 믿음을 지켰다. 목실한 신앙인이었던 정요한 집사의 할아버지는 바이올린을 처음 배우는 어린 손자를 품고 기도하며 찬송가를 가르치셨다. 두 사람은 뭇지 모르고 배우고 익힌 신앙을 한국 교회에서 다시 확인했다.

니의 기도를 먹고 자랐다. 어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기도 생활을 했고 믿음을 지켰다. 목실한 신앙인이었던 정요한 집사의 할아버지는 바이올린을 처음 배우는 어린 손자를 품고 기도하며 찬송가를 가르치셨다. 두 사람은 뭇지 모르고 배우고 익힌 신앙을 한국 교회에서 다시 확인했다.

뛰어난 부부 음악가인 정요한 집사와 김예나 집사는 국내외 유명한 교향악단의 스카우트를 사양하고, 한정협 홍보대사로 복음통일을 사모하며 수많은 군부대와 교회 그리고 신앙 집회에서 연주와 간증을 했다. 금번 미주 연주 계획은 아가페 만나 재단의 문대연 박사와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California Theological Seminary) 학장인 박병동 박사 주선으로 이뤄졌다.

이 부부 탈북자의 남가주 연주 여행은 은혜한인교회에서 9월 13일 오후 4시에



왼쪽부터 아가페 만나 재단 문대연 목사, 정요한 김예나 부부, 박병동 CTS 학장. ©주최 측 제공

열리는 26년 다민족연합기도대회 특별 찬양으로 시작한다.

이번 탈북 부부 음악의 연주나 간증에

대한 문의는 박병동박사(919 200 3456) 혹은 문대연 박사(702 335 0113)에게로 연락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부에나파크교회 하정완 목사 초청 부흥회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
매일 저녁 7시에는 말씀집회



하정완 목사

부에나파크교회(김성남 목사)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서울 꿈이 있는 교회 하정완 목사를 초청해 부흥회를 개최한다.

부흥회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진행되며, 매일 저녁 7시에 말씀집회가 열린다.

또한 12일 토요일 오전 6시에는 특별기도회, 13일 주일 오전 10시 50분에는 영화 ‘페이스메이커’를 통한 영화 설교가 마련된다.

◆부흥회 일정
일차: 9/11(금)-9/15(화)
9/12(토) 오전 6시: 특별한 기도(단

6시-10)
9/13(주일) 오전 10시 50분: 영화 설교(페이스 메이커, 히 12:1-2) “얼마나 멋있는가?”

장소: 부에나파크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문의: (김성남 목사)310-986-9986

김민선 기자

Adellina

더 나은 수면을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

Simple Way to *Better Sleep*



Adellina
홈페이지



Adellina
브랜드스토어



성시화운동본부 9월 정기운영위원회 열려

다민족기도회·제11회 설교 페스티벌 등 주요 사역 논의
유스 하이어콜링에 3천 달러 지원 결의

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송정명 목사·한기홍 목사)는 9월 정기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사역을 보고하는 한편, 향후 사업과 행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성시화운동본부는 2026년 표어를 “이 도시를 여호와께로”로 정하고 지역 교계와 함께 도시 복음화와 교회 연합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이날 모임은 1부 경건회와 2부 정기운영위원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시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경건회

에서는 신용환 목사가 기도했으며, 이종희 목사가 느헤미야 2장 17~20절을 본문으로 “무너진 성벽 앞,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며 다시 성벽을 세우기 위해 일어섰던 느헤미야의 믿음과 헌신을 강조하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도시와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말씀은 참석한 25명의 운영위원들에게 도

전과 은혜를 전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서기가 지난 8월 회의록을 보고했으며, 8월 31일 개강한 The Great Commission Seminary 관련 사항 등 그동안 진행된 사역들이 보고됐다.

토의 및 결의 시간에는 리빙워십 대표 조셉 리 목사를 성시화운동본부 자문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또한 다민족기도회를 오는 9월 13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제11회 설교 페스티벌은 10월 10일 갈보리선교교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차세대를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운

영위원회는 유스 하이어콜링(Youth Higher Calling) 사역을 위해 3,000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할로윈 시기에 교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독교적 대안 행사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밖에도 이재환 선교사가 섬기는 컴미션(COMMission)의 대추 농장을 9월 14일 방문하기로 했다. 방문단은 이날 오전 9시 미주평안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전자신문 편집위원으로는 김재권 장로, 이지란 장로, 옥세철 장로, 이종희 목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성지순례 참여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성시화운동본부 9월 정기운영위원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은 9월 11일 미주평안교회에서 진행하며, ALO 기독교오페라단 공연은 12월 4일 감사한인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성시화운동본부의 다음 정기운영위원회는 10월 7일(수)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장애가 꿈을 막지 않도록”… 밀알, 2027년 장애인 장학생 모집

26년째 이어온 장학 사역… 누적 지원액 328만 달러 넘어
지난해 119명에 13만4천여 달러 전달… 12월 4일까지 신청

남가주밀알선교단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돕기 위해 2027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장학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 풀타임으로 재학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밀알장학생’, 사랑의교실 참가자 또는 배움의 기회와 학업의 격려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꿈나무장학생’, 미주 각 지역 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복지생’ 등이다.

밀알장학생 신청자는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비롯해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500단어 이상의 본인 신앙 간증문, 수입증명서, 추천서 1매를 제출해야 한다. 추천서는 출석교회 담당 사역자 또는 소속 학교 지도교수에게 받을 수 있다.

꿈나무장학생은 신청서와 재학 또는 소속기관 증명서, 본인 또는 보호자의 500단어 이상 신앙 간증문, 추천서 1매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생은 신청서와 본인 신앙 간증문, 수입증명서, 추천서 1매가 필요하다.

남가주밀알선교단은 완성되지 않은 신청서나 제출서류가 부족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장학생들도 반드시 동일한 절차를 거쳐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서는 남가주밀알선교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장학금은 밀알장학생과 근로복지생의 경우 1인당 연간 3,600달러로, 매월 300달러씩 지급된다. 꿈나무장학생에게는 1인당 1,000달러가 일시 지급된다.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4일까지이며, 우편 접수인 경우 해당 날짜까지 우체국



2026 수여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 ©단체 측 제공

직인이 찍힌 서류에 한해 인정된다.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장학생 선정 결과는 12월 30일 개별 통보되며, 장학금 수여식은 2027년 1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은 2001년 처음 출범했으며, 2026년에는 119명의 장애인 장학생들에게 총 13만4,888달러가 지급됐다. 2001년부터 2026년까지 지급된 누적 장학복지기금은 총 328만1,488달러

다.

신청 및 문의는 밀알선교단 장학복지위원회(남가주밀알선교단 사무실)로 하면 된다. 주소는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이며, 전화는 562-229-0001, 이메일은 admin@milalsca.org, 홈페이지는 www.milalsca.org다 (http://www.milalsca.org다/).

김민선 기자

CMF선교원, 창립 27주년 감사예배 드려

27년간 이어온 선교의 발걸음… “하나님 기쁨, 우리 기쁨”

CMF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이 창립 27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고, 지난 사역을 돌아보며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CMF선교원은 지난 9월 5일 오후 5시 CMF선교원 회관에서 창립 27주년 기념 및 9월 정가예배를 드렸다. 참석자들은 지난 27년 동안 선교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와 기도, 간증과 친교로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예배는 찬양팀의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됐으며, 김철민 장로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유진 선교사(예멘)가 대표 기도를 드렸고, 원성구 선교사(CMF)가 말씀을 전했다.

원성구 선교사는 시편 139편 14절을 본문으로 “God’s Grace in My Life”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원 선교사는 “제 목의 설교를 전했다. 원 선교사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

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선교의 길 역시 인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이어져 왔음을 강조했다.

이어 이축복 선교사가 5분 간증을 통해 자신의 삶과 사역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며, 참석자들은 원성구 선교사의 인도로 합심기도를 드리며 CMF선교원의 사역과 선교 현장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예배는 원성구 선교사의 축도로 마무리됐으며, 이후 참석자들은 친교의 시간을 가지며 창립 27주년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나눴다.

27년이라는 시간은 수많은 기도와 헌신, 그리고 선교지를 향한 발걸음이 쌓여온 시간이다. CMF선교원은 그동안 예배와 기도, 선교와 교제를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이어오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교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힘써 왔다. 김민선 기자



CMF선교원 창립 27주년 기념 및 9월 정가예배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주님 안에 거하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아틀란타한인교회, 18~20일 유기성 목사 초청 영성부흥회

아틀란타한인교회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내 안에 거하라’를 주제로 유기성 목사 초청 영성부흥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흥회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

는 삶과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사로 나서는 유기성 목사는 선한목자교회 원로목사로, 예수동행운동을 이끌며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강조해 왔다.

주요 저서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이 있다.

◆사흘간 말씀 집화… 지역 한인 성도 초청

유기성 목사 초청 영성부흥회는 1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을 제목으로 시작된다. 19일 토요일 오

후 7시 30분에는 이번 부흥회 주제인 ‘내 안에 거하라’로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 날인 20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를 제목으로 집회를 이어간다.

집회는 미국 조지아주 둘루스에 위치한 아틀란타한인교회에서 열린다. 주소는 3205 Pleasant Hill Rd., Duluth, GA 30096이다.

김민선 기자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심장

탄소중립 선도 도시

보령

- 탄소중립 에너지 기회발전 특구 선정
- 지방소멸기금 투자 우수지역 선정

“손양원 목사의 신앙 유산 잇는다”... 중동기독신우회, 창립 10주년 간증집 발간

7일 순복음예수소망교회서 중동기독신우회 9월 정기예배 및 간증집 『손양원 선배의 유산』 출판기념회 열려

중동중고등학교 기독교 문인으로 구성된 중동중고 기독교신우회(중동기독신우회, 회장 백강수 장로)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순복음예수소망교회(최명우 목사)에서 2026년 9월 정기예배와 함께 간증집 『손양원 선배의 유산』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016년 3월 공식 출범한 중동기독신우회의 창립 10주년을 맞아 처음 발간된 이번 간증집은 중동고등학교 출신인 손양원 목사의 신앙 유산을 따라 국내외에서 선교와 목회에 헌신해 오거나, 신우회를 이끌어 온 동문 선교사 및 원로 선배 17인의 간증과 인생 여정을 17개 장에 실었다.

마지막 18번째 장은 백강수 신우회장(법무법인 하나로 대표변호사, 팀엔팀 이사장, 순복음예수소망교회 장로)이 쓴 중동기독신우회의 설립 과정과 이후 10년간의 사역 이야기다. 백 회장은 중동 총동문회 회장이던 2014년 2월 손양원 목사에게 중동고 명예졸업장을 헌정한 것을 계기로 2016년 신우회를 창립하고, 이후 ‘땅끝선교’를 목표로 사역하며 그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다. 필진은 목회자와 선교사, 원로 동문을 절반씩 배치하고, 가수별로도 균형 있게 선정했다. 미션스쿨이 아닌 일반 사립고 동문 신우회가 이 같은 간증집을 펴낸 것 자체가 드문 사례로, 다른 학교 동문 신우회는 물론 교계에 신앙적 도전을 던지며 귀감이 되고 있다.

중동기독신우회 회원과 가족, 중기모(중동고 기독교 학부모 모임, 기도하는 어머니 모임) 회원 등 11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1부 만찬에 이어, 2부 9월 정기예배 및 출판기념예배가 순복음예수소망교회 대성전에서 드러졌다.

예배는 김영철 목사(76회)의 인도로 마라나타찬양단의 찬양 인도, 조이레 목사(71회)의 대표기도, 김혁중 집사(83회)의 말씀봉독으로 이어졌다. 특송 시간에는 소프라노 손난영, 테너 강영린(64회)이 각각 열정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손양원 목사의 막내딸 손동연 권사와 남편 김원하 목사가 피아노와 트럼펫 듀엣 연주로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최명우 순복음예수소망교회 담임목사

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과 소망, 사랑의 삶을 몸소 실천했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생애를 조명하고, 손 목사의 신앙 유산을 담은 간증집 출판을 축하했다.

최 목사는 “손양원 목사님은 대한민국 기독교의 자랑일 뿐 아니라 중동고등학교의 자랑이며,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을 일생 실천한 하나님 나라의 보배”라며 “우리가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 남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을 본받게 되듯, 손양원 목사님이 남기신 그 사랑의 흔적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믿음으로 중동신우회 후배들이 이 놀라운 도서를 출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학교를 복음화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동문이 되시길 바란다”며 “이 뜻깊은 행사가 저희 교회에서 열리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동문의 공간으로 잘 활용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최남식 목사(68회)의 헌금 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3부 간증집 출판기념회는 대성전 박로비에서 김혁중 집사(83회)의 진행으로, 백강수 신우회장의 인사 말씀, 최명우 목사, 손양원 목사의 막내딸 손동연 권사와 김원하 목사 부부, 권혁만 전 KBS PD의 인사 및 축하 말씀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백강수 신우회장은 “중동기독신우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 간증집을 출판하며 1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올리게 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중동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 아니지만 이러한 신앙 간증집이 나온 것은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 중동신우회의 뿌리가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결속되고 열정적으로 모이고, ‘땅끝선교’를 하는 기저에는 손양원 선배님이 계신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또한 “2016년 신우회가 출발할 때 선교를 지향하는 모임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선교사목사를 중심으로 필진을 선정하고, 또 가수별로 고르게 선배님들을 선정해 신앙과 인생 이야기를 수록했다”며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중동기독신우회를 만드셨고 10년의 세월을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



출판기념회에서 중동기독신우회 회장 백강수 장로가 인사 말씀을 전하고 있다.



손양원 목사의 막내딸 손동연 권사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중기모 어머니들과의 연대와 기도를 통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신우회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최명우 목사는 그동안 순복음예수소망교회와 함께 해 온 중동 동문회원과 신우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고, 손동연 권사는 “이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럽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다는 것도 몰랐었는데, 철이 들고 지금 와서 보니까 대단한 아버지셨다”며 이 자리를 마련해 준 중동기독신우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13년 성탄 특집 다큐멘터리 ‘죽음보다 강한 사랑, 손양원(나의 아버지 손양원)’을 제작하고,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를 제작하여 개봉을 앞둔 권혁만 PD는 “저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기록은 끝났지만, 오롯까지 손양원 목사님의 업적을 다큐멘터리로 이어가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며 “17분의 저자와 간증집을 출간하기 위해 기도하신 백강수 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

드리고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손양원 목사는 1919년 4월 서울 안국동 중동학교에 입학했으나, 34운동 이후 부친 손준일 장로가 고향 경남 함안에서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르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이듬해인 1920년 4월 학업을 중단했다. 이 사실은 오랫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가, 2013년 중동고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던 백강수 장로가 이를 확인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백강수 장로는 이를 계기로 2014년 2월 모교 졸업장 수여식에서 95년 만에 손양원 목사에게 명예졸업장을 헌정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당시 명예졸업장은 손양원 목사의 큰딸 손동희 권사가 대신 받았으며, 이후 손양원 목사가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했던 전남 여수 애양원에 전달됐다. 2016년 창립된 중동기독신우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흠아지면 전도하는 성령 충만한 신우회를 지향하여 36912월 분기마다 정기예배를 드리고, 동문 선교사 및 목사들을 위한 기도 및 지원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지희 기자

은혜제일교회, 9월 12일 천종호 판사 초청 북콘서트 진행

‘천종호 판사가 들려주는 십계명’ 주제로 강연 펼쳐져
10월 31일은 『놓아줄 용기』 가족 관계 회복 토크콘서트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은혜제일교회(최원호 담임목사)가 오는 9월과 10월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신앙과 청소년 문제, 가족 관계를 다루는 ‘매마토.2’ 북콘서트를 연이어 개최한다.

오는 9월 12일 오후 2시에는 소년 재판 현장에서 수많은 청소년을 만나 얹히게 꾸짖으면서도 따뜻하게 품어온 천종호 판사를 초청했다. ‘호통판사’로 널리 알려진 천종호 판사는 이날 ‘천종호 판사가 들려주는 십계명’이라는 주제로, 소년법정에서 직접 만났던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 책임

과 용서, 부모와 자녀, 다음세대를 대하는 어른들의 책임에 대해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특히 성경의 십계명을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일’로 가르쳐서 접근하기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과 부모, 교사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삶의 기준과 공동체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낼 전망이다. 청소년 문제를 개인의 일탈, 처벌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교회, 사회가 함께 품어 어떻게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10월 31일 오후 2시에는 상담심리 전문가인 최원호 목사와 임은목 목사가 공저한 시간 『놓아줄 용기』를 중심으로, 가족 간의 상처와 갈등 회복을 다루는 토크콘서트가 준비되어 있다.

2026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업 공모 선정작이기도 한 이 책은 상처를 품고도 온전해지는 가족 심리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반복되는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가족상담을 다뤘다. 특히, ‘가족은 왜 사랑하면서도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부모와 자녀의 갈등, 부부 사이에 쌓인 감정, 어린 시절의 상처가 현재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담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또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녀를 붙잡고 변화시키려는 부모의 심리, 부모의 기대와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자녀의 심리 등 상대를 바꾸려는 관계에서 서로를 살리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때로는 ‘붙잡는 사랑’보다 ‘놓아줄 용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날 북콘서트는 최원호 목사, 임은목 목사가 ‘가족 갈등과 관계 회복’을 주제

로, 책에 담긴 가족 상담 사례와 원리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가 왜 사랑하면서도 충돌하는지, 가족 안에서 반복되는 갈등의 뿌리는 무엇인지,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어떤 심리적 거리가 필요한지 등을 참석자들과 함께 풀어갈 예정이다.

한편, 은혜제일교회가 2022년부터 개최해 온 ‘매마토.2’(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는 목회자와 찬양사역자, 문화예술인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찬양과 간증, 강연, 토크콘서트 등으로 진행되는 문화목회 프로그램이다. 교회의 문턱을 낮춰 지역 주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 삶의 위로와 영적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성도와 지역 주민이 함께 신앙과 삶의 문제를 나누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되어왔다. 올해도 6월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가 초청돼 찬양과 간증으로 감사와 믿음의 메시지를 전했고, 8월에는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가 참여해 특유의 유머와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와 감사의 영성에 대해 나눴다. 특히 장 목사는 개척 5년 차를 맞은 최원호 목사와 목회 비전을 나누는 ‘1대 1 목회 코칭’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는 “9월에는 천종호 판사와 함께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품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10월에는 『놓아줄 용기』를 통해 가장 가까우면서도 때로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가족 관계를 돌아볼 예정”이라며 “청소년의 회복에서 가족의 회복까지 결국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매마토.2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마토.2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함께 복음과 문화, 삶의 문제를 나누면서 교회와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장이 되어 왔다”며 “앞으로도 성도뿐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 삶의 지혜와 위로를 얻고, 영적 정서적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목회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혜제일교회 ‘매마토.2’ 북콘서트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이지희 기자



우리의
행복이
일상이
되도록

더 깨끗한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갈 우리를 위해,
더 투명한 세상을 위해,
한국중부발전이 이끌어 나가는 ESG 경영.

깨끗한 에너지로 국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발전회사가 되겠습니다.

**THINK TOMORROW,
ESG LEADER!**

수소 밸류체인 구축 확대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
발전사 최대 양수발전 사업자 선정
(구례, 봉화)

해외 운영사업장
발전5사 중 1위
(11개소)

아세안국가 전력시장 선점을 위한
TEAM KOMIPO 해외동반진출
(9년 연속 동반성장평가 최고등급 달성)

KOMIPO
한국중부발전

“출산은 의료행위 아닌 삶의 전환… 사회적 지원 확대해야”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과정은 단순한 출산을 넘어 정서적·사회적·영적 변화를 동반하는 중요한 삶의 전환인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영국 기독교 싱크탱크 테오스(Theos)와 성서공회(Bible Society)가 공동 발간한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모성(Motherhood, Inside Out)' 보고서는 '마트레센스(matrescence-어머니가 되어가는 과정)' 개념을 중심으로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는 여성들의 삶을 분석하며, 많은 어머니들이 충분한 지원 없이 이중적인 변화를 홀로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2025년 3월부터 9월까지 영국 전역의 어머니 91명과 모성의로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2026년 4~5월에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를 통해 영국 여성 4,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 서문을 쓴 저자 루시 존스(Lucy Jones)는 “많은 여성이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사건 중 하나인 ‘어머니가 되는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도 잘 드러나지 않으며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 그리고



©Pixabay

가장 연약한 시기의 아이를 양육하는 고도의 돌봄 노동은 아버지와 다른 보호자들도 함께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어머니들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사회는 그 무게와 복잡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산후 정신질환과 고립감이 증가하고 산후 돌봄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여성들이 인생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 가운데 하나를 준비하고 지원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연구는 모성을 하나의 동일한 경험으로

규정하지 않고 여성마다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여성들은 어머니가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답한 반면, 다른 이들은 이를 “삶 전체를 뒤엎는 개인적인 지진”에 비유하며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출산 이후 많은 여성들이 삶의 우선순위와 인간관계, 직업, 삶의 목적 등을 새롭게 돌아보게 된다고 밝혔다.

또 종교 유무와 관계없이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은 뒤 신앙과 죽음, 삶의 의미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됐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이로움과 연결감, 초월적 경험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5%는 자녀를 낳은 뒤 죽음에 대해 이전보다 더 자주 생각하게 됐다고 답했으며, 이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염려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기독교인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모성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영유아를 돌보면서 예배 참석과 개인 기도, 성경 읽기가 어려워졌지만, 일부는 아이를 돌보는 중에 기도하는 등 새로운 신앙생활의 리듬을 만들어갔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모성이 여성들의 사회 참여에도 영향

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교육과 환경, 기술 정책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신적 안정을 위해 일부러 부정적인 뉴스를 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한 많은 어머니들이 출산 이후 자신이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거나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수면 부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로,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박, 높은 양육비 부담, 지역사회와의 연결 부족으로 인한 고립감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소셜미디어는 비현실적인 육아 모습을 보여준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왓츠앱(WhatsApp) 모임 등 또래 부모들과 연결되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직접 만나는 인간관계가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보고서는 교회가 유아 모임과 식사 지원, 세대 간 교제 등을 통해 새내기 엄마들에게 공동체, 즉 ‘마을(village)’과 같은 역할을 하는 몇 안 되는 공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연구진은 교회 역시 어머니들의 영적 필요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의료진이 산후 정신질환 여부만 판단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적·영적 변화를 이해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산후 6주 건강검진을 아기뿐 아니라 산모의 전반적인 건강과 삶을 함께 살피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출산 이후 지속적인 돌봄 체계를 마련하며, 배우자가 병원에 더 오래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회를 향해서는 부모들을 위한 실질적·영적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한편, 기도과 예식을 통해 어머니가 되는 삶의 전환을 의미 있게 기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어머니들을 지원하는 일은 의료기관이나 교회만의 책임이 아니라 직장, 가정, 지역사회, 언론, 정책 입안자 등 사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앙공동체와 교회가 운영하는 다양한 모임이 새내기 엄마들에게 중요한 공간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와 정부 정책 차원에서 훨씬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삶의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 핵심적인 접점에서 작은 변화만 이뤄져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친절한 교회’만으로는 부족하다… 새 신자가 찾는 것은 ‘소속감’”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교회 연구가이자 컨설턴트, 교회 리더들을 지원하는 사역 기관인 처치앤서스(Church Answer)의 설립자이자 CEO인 톰 레이너 목사의 기고글을 “친절함”만으로는 교회 성장에 충분하지 않은 이유(Why ‘friendly’ isn’t enough to grow your church)라는 제목으로 최근 게재했다.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레이너 목사는 다수의 책을 출간했으며 40년간의 목회 경험을 밑거름 삼아, 개교회와 교회 리더십의 영적 성장과 건강을 위해 실제적인 자료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대부분의 교회는 친절한 공동체로 인식되기를 원한다. 실제로 많은 교회가 방문객을 따뜻하게 맞이한다. 예배당 입구에서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미소와 악수로 환영하며, 성도들 역시 친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둘러싼 환경은 달라졌다. 현대 사회에서 친절은 더 이상 교회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다. 방문객들은 단순한 환영을 넘어 의미 있는 관계와 분명한 방향성, 그리고 자신이 속할 수 있는 공동체를 기대한다.

이에 따라 교회는 아무리 친절하더라도 새로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역사회를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친절을 넘어 보다 의도적이고 깊이 있는 관계 형성과 사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절은 이제 ‘기본’, 차별화 요소는 아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방문객은 교회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고 기대한다. 입구에서의 미소, 로비에서의 악수, 예배 전 짧은 대화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특별한 경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방문객들은 이미 식당과 헬스장, 학교, 다른 교회 등 다양한 공간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친절은 여전히 필요한 요소지만, 교회를 다른 공동체와 구별해 주는 특징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교회가 단순한 친절에만 의존할 경우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오히려 의도적인 관계 형성과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방문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이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문객은 ‘따뜻함’보다 ‘방향성’을 살핀다

따뜻한 첫인상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재방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방문객들은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가’, ‘예배를 이해할 수 있는가’, ‘다음 단계로 참여할 방법이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진다.

또한 교회가 무엇을 믿고, 그 신앙을 어떻게 실

현하며, 자신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친절이 문을 열어주는 역할이라면, 분명한 비전과 방향성은 방문객을 공동체 안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후속 돌봄 없는 친절은 오래가지 않는다

주일 예배에서 받은 따뜻한 환영도 이후의 연결이 없다면 오래 기억되지 않는다.

많은 방문객은 예배 당일에는 친절을 경험하지만, 그 이후에는 교회와의 접점이 사라진다. 방명록이나 새가족 카드를 작성해도 연락이 없거나, 짧은 대화만 나눈 채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단순히 좋은 경험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원한다고 설명한다. 누가 먼저 연락할 것인지, 어디에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지, 공동체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친절이 체계적인 후속 돌봄과 결합될 때 비로소 일회성 만남이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하며, 진정한 목회가 시작될 수 있다는 평가다.

◆성도들끼리만 친절한 교회가 될 수도

많은 교회는 성도들 사이에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서로 친밀하게 대화하고 자연스럽게 웃으며 교제하는 모습은 공동체의 강점이다.



©Pixabay

하지만 이러한 친밀함이 오히려 새로운 방문객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

처음 교회를 찾은 사람들은 이미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척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대화에 초대하거나 관계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방문객은 공동체를 ‘구경만 할 뿐 실제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따뜻한 분위기를 가진 교회라도 외부인에게서는 닫혀 있는 공동체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성도들이 기존의 관계를 즐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적극 초대할 때 비로소 방문객들도 자신이 환영받

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

친절은 중요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찾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관계다.

방문객들은 단순히 인사를 받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이름과 이야기를 기억해 주고,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공동체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말하는 것보다 경청하고, 예배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며,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다른 성도들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작은 실천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행동은 “당신은 이 공동체에서 소중한 사람”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전문가들은 교회가 단순한 친절을 넘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투자하는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다고 강조한다.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환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진심으로 이해받고 받아들여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원한다면 친절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공동체를 세우기가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미경 기자

세상에서 가장 상스러운 단어가 일상이 될 때

욕설이 점령한 시대와 그리스도인의 언어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마크 크리치 목사<사진>의 기고글인 “욕설이 일상이 된 시대, ‘F-word’는 우리에게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When vulgarity becomes ordinary: What the F-word says about us) 9월 8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F-word’를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 단어는 이제 거의 어디에서나 들린다. TV와 영화, 음악과 팟캐스트, 소셜미디어, 스포츠 경기, 직장과 식당은 물론 평범한 일상 대화에서도 너무나 쉽게 등장한다.

강한 욕설은 듣는 사람을 순간적으로 놀라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러나 같은 표현이 끊임없이 반복되면 이상한 변화가 생긴다. 처음에는 충격적이었던 말이 점차 익숙해지고, 결국 그 말이 지녔던 충격마저 사라진다.

◆충격적인 욕설에서 일상적인 추임새로

한때 주로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던 이 단어는 이제 사실상 ‘만능 단어’가 됐다. 사람들은 화가 날 때도, 기쁠 때

도, 놀랐을 때도, 두려울 때도 사용한다. 감탄과 혐오, 흥분과 좌절을 표현할 때도 쓰고, 동사와 명사, 모욕적인 표현과 감탄사, 강조어까지 자유롭게 활용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의 문장의 마침표나 쉼표처럼 사용될 정도다.

그렇다면 F-word의 역사는 단순히 하나의 성적 표현이 욕설로 변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한때 상스럽다고 여겨졌던 언어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어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에 가깝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나온다. 한 사회가 더 이상 상스러운 언어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될 때, 그 문화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기독교인들은 종종 이 문제에 대해 “성경 어디에 이 특정 영어 단어를 쓰지 말라고 되어 있느냐”고 질문한다. 그러나 그런 접근은 핵심을 놓칠 수 있다.

성경은 금지된 단어들의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어떤 성경의 말을 해야 하며, 우리의 언어가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반복해서 다룬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엡 4:29).

또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

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엡 5:4)라고 권면하고,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고 명한다(골 3:8).

성경의 관심은 단순히 특정 단어를 금지하는 데 있지 않다. 우리가 입으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에 있다.

◆우리가 ‘하지 않는 말’이 증언이 될 때

욕설이 너무 흔한 문화 속에서는 오히려 욕설을 하지 않는 모습이 눈에 띌 수 있다. 기독교인이 무엇을 말하느냐뿐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도 때로는 하나의 증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욕설을 사용하지 않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천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눅 6:45)

결국 언어는 마음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물론 누군가 무심코 거친 말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다. 반대로 욕설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욕설은 하지 않으면서 거짓말하고 헐뜯으며, 비방하고 자랑하며, 말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상처 입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언어 습관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다.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드러낸다

입에서 거칠고 저속한 말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면, 단순히 그 단어를 조금 더 접점은 표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보다 먼저 자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 그렇게 쉽게 분노하는가. 왜 타인을 모욕해야 마음이 풀리는가. 왜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가장 거친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왜 평범한 대화에서도 상스러운 표현 없이는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고 느끼는가?

F-word가 오늘날 사용되는 방식을 보면 이런 질문은 더욱 흥미로워진다.

본래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이제는 분노와 경멸, 조롱, 흥분, 좌절, 놀라움은 물론 단순한 강조까지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인간의 성과 관련된 가장 노골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거의 모든 감정을 묘사하는 만능어로 변해버린 셈이다.

누군가는 이것을 언어적 해방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는 오히려 반대로 본다. 풍부한 언어를 가진 사람은 외설적인 표현 없이도 분노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 천박함 없이 열정을 표현할 수 있고, 상대의 인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강하게 반대할 수 있으며, 상

스러운데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재미있는 말을 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욕설이 거의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을 떠맡았다면 그것은 언어가 풍부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언어가 가난해진 것에 가깝다.

◆상스러운이 평범해질 때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떤 언어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더 이상 그것을 의식조차 하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상스러운 표현이 특별히 충격적이지 않고, 별다른 의미도 없이 습관처럼 반복되는 단계에 이르면 문제는 단순한 언어학의 영역을 넘어선다.

그것은 문화와 마음의 문제다. 예수님은 입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끊임 없이 분노와 조롱, 성적인 외설과 저속한 표현을 소비한다면 그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언어 속으로 스며드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질문은 단순히 “이 단어를 말해도 되는가”가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내 말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무너뜨리고 있는가, 내가 입을 열었

을 때 사람들은 은혜와 진실, 절제와 사랑을 느끼는가, 아니면 분노와 경멸, 조롱과 천박함을 느끼는가?”

◆필요한 것은 단순한 언어 순화가 아니다

만약 거친 욕설이 자신의 일상적인 언어가 되어버렸다면, 욕을 할 때마다 저급 통에 동전을 넣는 식의 행동 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습관을 고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는지 의식하고, 자신이 소비하는 미디어와 대화를 돌아보며, 더 좋은 언어를 선택하도록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더 깊은 곳을 바라본다. 문제는 입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드러낸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단순히 상스러운 단어 몇 개를 입에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분노와 교만, 경멸과 음란함을 다루시며, 그 결과 우리의 언어 역시 변화되도록 내어드리는 일이 필요하다.

기독교는 단순히 “욕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한다. 말이 달라지기 전에 마음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그 변화를 ‘거듭남’이라고 부른다. 다니엘 최 기자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서:

지리적 단서들이 말해주는 태초의 성소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데스먼드 알렉산더 박사<사진>의 기고글인 ‘성경 속 에덴동산은 어디에 있었나?’(Where was the Garden of Eden?) 9월 7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에덴동산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장소 가운데 하나지만,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창세기 2장 8절은 이곳을 “에덴에 있는 동산”으로 소개한다. 이 표현은 에덴동산이 ‘에덴’이라 불리는 더 넓은 지역 안에 자리한 특정 장소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에덴과 에덴동산이 반드시 동일한 범위의 장소였다고 볼 필요는 없다.

같은 구절은 에덴이 “동방에” 있었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동방에(in the east)”로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은 문맥에 따라 “동쪽을 향하여(eastward)”라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은 동산의 입구가 동쪽에 있었다고 기록한 창세기 3장 24절과도 잘 어울린다.

◆네 개의 강이 주는 단서

창세기 2장 10~14절은 에덴과 관련된 네 개의 강을 언급한다. 비손과 기혼, 히데겔, 유브라테스. 히데겔은 일반적으로 티그리스강으로, 유브라테스는 유프라테스강으로 이해된다. 두 강 모두 오늘날까지 잘 알려진 중동의 주요 하천이며,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기 전에 서로 가까워진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강의 정체는 훨씬 불분명하다. ‘비손’이라는 이름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2장에만 등장한다. 창세기 2장 11절은 비손강이 ‘하윌라’ 땅을 두른다고 말하지만, 이것만으로 위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하윌라라는 지명이 등장하지만, 반드시 모두 같은 지역을 가리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에덴동산은 고지대에 있었을까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네 강과 동산의 상대적 위치다. 창세기 2장 10절은 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이후 여러 갈래로 나누었다고 기록한다. 존 월튼(John Walton)은 이 구절을 근

거로, 에덴에서 나온 물이 동산을 통과한 뒤 네 강의 근원이 됐다고 본다. 그의 해석을 따르면 에덴동산은 여러 강의 발원지가 될 수 있는 비교적 높은 지역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에덴에서 풍부한 물이 솟아 동산을 적시고, 그 물이 다시 여러 방향으로 흘러나와 비손과 기혼,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의 근원이 됐다는 것이다.

반면 케네스 키친(Kenneth Kitchen)은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그는 창세기 2장 10~14절이 동산을 적시는 강보다 상류에 있는 여러 수계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을 설명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네 개의 강이 합류해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고, 그 물이 동산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해석을 따르면 에덴동산의 위치는 페르시아만 상류의 저지대 부근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에덴은 ‘하나님의 산’과 연결되는가

그러나 에스겔 28장 13~14절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하나님의 성산”과 연결해 묘사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산과 연결되는 장면이 반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에덴동산 역시 단순한 평지보다는 높은 지역과 관련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이 관점에서는 창세기 2장이 에덴을 여러 강의 발원지로 묘사하고 있으며, 동산을 풍요롭게 하는 물이 그곳에서 흘러나왔다고 보는 해석이 더 자연스럽다.

물론 이것만으로 에덴동산의 위치를 확정할 수는 없다.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지리적 정보는 에덴동산이 단순한 상징적 공간이 아니라 실제 세계의 특정 지역과 연결된 장소로 이해됐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오늘날 지도 위에 정확한 지점을 표시할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위치보다 의미

그렇다고 에덴동산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에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했던 태초의 조화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공간으로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에덴동산의 여러 요소는 이후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에서 다시 등장한

다. 금과 보석, 나무와 생명의 이미지, 동쪽을 향한 입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요소들이 서로 연결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래전 잃어버린 에덴동산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장소로 기능했고, 에덴의 이미지와 구조를 여러 방식으로 반영했다.

이 점에서 성전은 일종의 ‘새로운 에덴’처럼 이해될 수 있다.

◆성경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간다

흥미롭게도 성경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에덴의 이미지가 다시 등장한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등장한다. 이것들은 창세기 2장의 에덴동산을 분명하게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원래 상태로 복원한 장소가 아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 에덴보다 더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과 함께 거하신다.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생명나무에 접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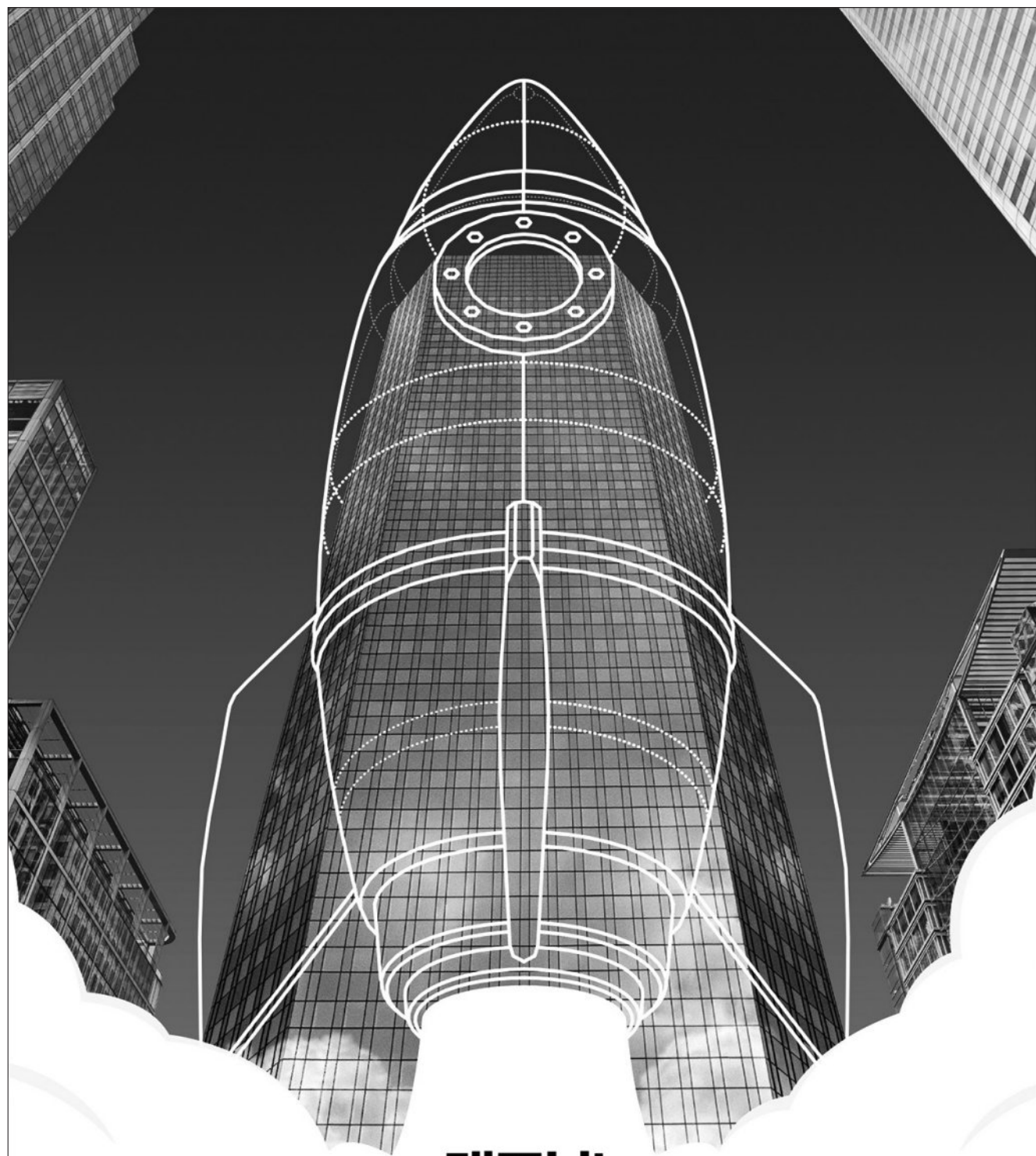
결국 성경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동산에서 시작해 회복된 하나님의 도성으로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동산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신약성경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고, 궁극적으로는 에덴보다 더 영광스러운 새 창조 안에서 자신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시길 것을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에덴동산은 단순히 잃어버린 고대의 장소가 아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이다.

다니엘 최 기자



대표님!

브리티 코파일럿으로

회사의 성장동력에 날개를 다십시오

성장은 언제나 혁신으로부터, 기업 최적화 생성형 AI가 업무 방식을 혁신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생성형 AI,

브리티 코파일럿과 함께라면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초안 작성 등 편리한 오피스 기능 | 강력한 검색 기능 | 믿을 수 있는 보안 | 실시간 자막, 회의록 작성 등 편리한 회의 지원 | SEAMLESS하고 쉬운 사용성

SAMSUNG SDS

‘오디세이아’의 환대(크세니아 xenia)와 비환대 교차 구조

서요한 목사

의왕 주는산성교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크리스토퍼 놀란(Christopher Nolan) 감독의 2026년 개봉작 ‘오디세이 The Odyssey’는 기본 배경지식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보게 되면 하나의 판타지 소설이라는 인상밖에 남지 않을 뿐 아니라, 3시간을 보고 난 후에도 ‘이게 뭐지?’라는 말만 남게 된다.

대부분 영화는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스pojiler(spoiler)’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자제하지만, ‘오디세이’만큼은 깊은 이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스포’가 필요한 영화이다.

원작이든 각색된 놀란의 영화이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환대(크세니아)’, 또는 ‘제우스의 법(Zeus’s law)’이다.

1. ‘제우스 크세니오스’와 고대 그리스 환대 규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크세니아(xenia)’는 낯선 이방인과 맞이하는 주인 사이에 맺어지는 종교적·사회적 상호 계약이자 신성한 관습이었다.

자신의 폴리스(polis)나 영토를 벗어난 나그네는 보호가 없는 위협에 처한 무력한 존재이다. 이 원초적 불안의 공간에서 이방인의 생존을 보장하고 타자를 사회적 질서 안으로 안전하게 편입시키기 위해 정립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제우스의 법으로 불리는 환대 윤리다.

호메로스 서사시의 세계관에서 ‘환대(Hospitality)’는 단순한 개인적 친절이나 의례적 예의를 넘어선다. 올림포스 최고의 주신 제우스는 ‘제우스 크세니오스(Zeus Xenios)’는 환대 규범을 직접 관장하고 집행한다.

신들은 나그네와 탄원자의 억울함을 갚아주는 보복자이며, 이들을 학대하거나 쫓아내는 인간 공동체에는 가혹한 재앙과 파멸을 내린다. 또한 나그네가 사람들의 도덕적 품성을 시험하기 위해 인간의 형상으로 변장한 신일 수도 있다는 사상은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모든 낯선 자를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맞이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동기를 부여했다. 그래서 놀란 감독의 영화에서도 ‘제우스의 법’이라고 표현한다.

호메로스의 작품 ‘오디세이아’에서 환대 장면이 매우 정교하게 전체 저변에 흐르고 있다. 나그네가 처음 방문하는 장소의



영화 스틸 컷(트로이 성이 불타는 장면)

문간이나 경계에 도착해 발견되기를 기다리면, 주인이 즉시 문밖으로 나아가 손을 잡고 무기를 거두며 안으로 안내한다.

이어 먼지와 피로를 씻어내는 발씻기와 목욕, 기름 바름의 환대가 진행된다. 손님은 집안에서 가장 중앙 좌석에 앉힌다. 핵심적인 규범은 주인이 나그네의 인적 사항이나 여행의 목적 등을 묻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가진 최선의 음식과 포도주를 먼저 풍성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점이다.

손님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완전히 해소된 뒤에야 비로소 “당신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이 가능하다. 식사 이후에는 노래와 경기 등의 오락이 제공되며 잠자리도 제공된다.

작별의 순간에는 환송 선물이 주어지고, 안전한 여정을 보장하는 호송 또한 뒤따른다. <오는 손님 적대하지 않고, 가는 손님 붙잡지 않는다>는 균형 감각이 야말로 크세니아의 완성이다. 『오디세이아』 서사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이 크세니아 규범의 엄격한 실행과 파괴 사이의 긴장이다.

환대의 수락과 거부, 충실한 이행과 열거적 악용은 등장인물들의 문명적 수준을 판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자, 주인 공 오디세우스의 고난과 생존, 그리고 궁극적인 귀향(nostos)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원인이 된다.

2. 오디세우스 귀향 궤적과 환대와 적대의 교차 양상

트로이 함락 직후부터 이타카 왕권의 회복에 이르는 오디세우스의 여정은 환대와 비환대(적대)가 정교하게 맞물리며 진행된다. 각 공간에서 오디세우스가 마주하는 상대들은 크세니아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드러내는데, 이는 오디세우스의 생존율과 귀환 가능성과 직결된다.

여정의 주요 장소를 원작 기준으로 시간순대로 따라가 보자.

1) 1단계(정복과 약탈): 오디세우스의 12척 함선은 돌아가는 동안 필요한 양식을 위해 이스타로스(키코네스 족)에서 정복과 약탈을 자행한다.

침략자로서 도시를 가습 약탈하고 주민을 살해한다. 이 과정에서 키코네스 족의 반격으로 선원 72명 전사한다. (놀란의 영화에서는 1단계 장면들이 생략된다)

2) 2단계(환대의 외곽): 연꽃(로토스)을 먹는 로토파고스인들의 땅에서 적의 없이 친절하게 환각성 연꽃을 대접받는다. 그러나 병사들은 달콤한 안식 뒤에 귀환 의지를 상실한다. 오디세우스는 전우들을 강제로 태우고 다시 항해를 시작한다.

3) 3단계(적대적 비환대): 키클롭스의 섬에 도착하여 동굴에서 외눈박이 폴리페모스를 만난다. 괴물 외눈박이는 제우스를 모욕하고 손님들을 산 채로 도륙하여 포식한다. 크세니아의 열거적 전복을 볼 수 있다. 외눈박이 폴리페모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었다. 포세이돈의 귀환 방해가 시작된다.

4) 4단계(모범적 환대에서 박대로): 아이올리아 섬(아이올로스 왕)에 도착하여 한 달간 극진히 대접을 받는다.

귀향에 도움이 안되는 역풍을 담은 9년 산 황소가족 자루를 선물로 받는다. 그러나 항해 중 병사들은 가족부대를 풀어버리게 되고, 다시 아이올로스의 섬에 되돌아 오지만, 환대는 적대로 바뀐다.

5) 5단계(극단적 비환대-집단 살육): 라이스트리곤인들이 사는 텔레필로스 섬에 도착한다. 손님을 즉시 잡아먹고 바위를



오디세우스 역(맷 데이먼 Matt Damon)

던져 배를 파괴하며 인간을 작살로 썰어 사냥한다. 11척의 선박과 대다수 선원은 궤멸되고 오디세우스의 배만 살아 남는다.* 놀란 감독의 영화에서는 은색 철갑을 입은 거인족으로 나온다)

6) 6단계(치명적 비환대-식탁의 기만에서 적극적 환대로): 아이아이에 섬에서 마녀 ‘키르케’를 만난다. 키르케는 정성껏 잔치를 베푸는 척하며 독약을 먹여 오디세우스의 병사들(손님들)을 돼지로 바꾸어 버린다. 환대 의례(식사 대접)를 나그네를 적대하는 도구로 악용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가 몰리(Moly)라는 약초로 키르케의 마법을 무력화시키자, 키르케는 1년간 헌신하며 저승 항로와 귀향 방법을 알려준다.* 놀란의 영화에서는 오디세우스가 키르케와 1년간 동거한 사실은 생략된다)

7) 7단계(과잉 환대-감금과 구금): 혼자 오기기가 섬에 도착한 오디세우스는 요정 ‘칼립소’를 만나게 된다. 오디세우스를 사랑한 칼립소는 영생불멸을 제안하며 안락을 제공하나 7년 동안 귀향을 불허하고 억류한다. 떠나려는 손님을 보내주어야 한다는 크세니아의 원칙을 위배한 감금이다. 결국 마지못해 보내게 된다.

8) 8단계(이상적 완전 환대): 알키노오스 왕이 다스리는 스케리아 섬(파이아스 족)에서 무조건적 잔치와 예우,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고, 기적과 같은 호송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포세이돈은 원수에게 환대를 베풀 파이아스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9) 9단계(경건한 순수 환대): 고향 이타카에 도착한 오디세우스는 궁으로 직진하지 않고,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가 있는 오두막으로 간다. 에우마이오스는 햇빛은 노인 거지에게 자신의 침상을 내주고



가축을 잡아 극진히 대접한다. 신분과 재력을 초월하여 제우스의 법을 순수하게 실현한 크세니아의 절정이다.

10) 10단계(체제적 비환대-환대 찬탈): 이타카 왕궁에는 왕위와 왕의 재산을 노리는 108명의 구혼자 집단이 있다. 수년간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걸인 나그네로 위장하여 나타난 오디세우스를 조롱하고 적대한다. 크세니아를 총체적으로 유린한 이들은 모두 처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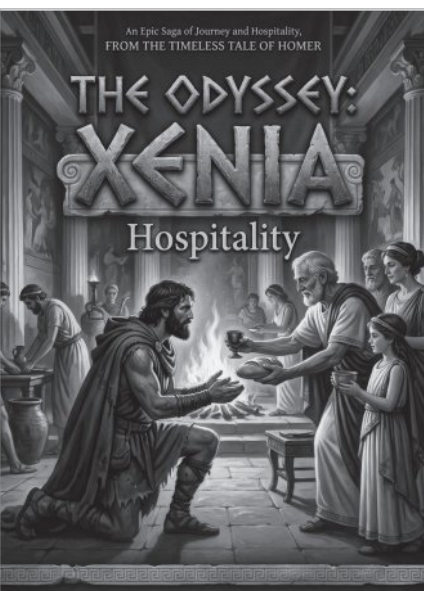
3. 비환대 상제보기 : 외눈박이 폴리페모스와 라이스트리곤 족

오디세우스의 귀환 과정 곳곳에 등장하는 괴물들과의 조우는 환대의 열거적 파괴를 보여준다. 오디세우스가 외눈박이 폴리페모스의 동굴에 발을 들이며 기대했던 것은 외눈박이의 야만이 아니라, 정당한 환대였다.

“우리는 그대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관습에 따라 우리를 환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선물을 주리라 기대하고 여기로 와서 당신의 무릎을 붙잡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신들을 두려워 하시오, 우리는 당신에게 탄원자들이라오. 제우스는 나그네와 탄원자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요, 존중받아 마땅한 나그네와 항상 함께 하시는 신이잖소”(9권 266-271/현대지성, 2026년 오디세이아 1판6쇄 기준)

그러나 폴리페모스는 자신의 키클롭스 족이 제우스나 그 어떤 올림포스의 신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응수하며 신성한 법을 정면으로 모독한다.

나그네를 화롯가에 앉히고 음식을 대접해야 할 주인이, 반대로 나그네를 자신의 음식으로 삼아 내장과 살과 뼈를 남김없이 먹어치워 버린다. 더욱이 폴리페모스가 오디세우스에게 약속한 ‘환대의 선물’은 그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



른 동료들을 모두 잡아먹은 뒤 가장 마지막에 먹어 치우겠다”는 조롱이었다.(9권 369-370)

이후 보복을 계획한 오디세우스가 포도주를 이용해 우유만 마시던 야수 폴리페모스를 취하게 만들고 올리브나무로 만든 거대한 창으로 그의 외눈을 찔러 눈 멀게 한다. 크세니아의 신성한 질서를 파괴한 야만에 대해 단죄이다.

이러한 식인의 공포는 거인족 라이스트리곤들에 의해서도 반복된다. 거인족들은 나그네를 맞이하는 대신 도망치는 오디세우스의 선원들을 향해 거대한 바위를 던져 항구에 정박해 있던 11척의 배를 일거에 침몰시킨다. 물에 빠진 선원들을 작살로 썰어 물고기처럼 운반해 잔치를 벌인다.

외눈박이 폴리페모스와 거인족 라이스트리곤족의 비환대는 낯선 자를 동등한 인격적 주체로 보지 않고 한낱 단백질 공급원으로 취급하는 극단적 ‘크세니아’ 파괴 행위이다.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세제한 해임면도

•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출일기금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 공유재산 개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혁신펀드

• 중소기업금융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4. 조건부 또는 변형된 환대 자세히 보기: 아이올로스, 키르케, 칼립소

서사의 중반부는 환대와 비환대가 선명한 단일 색조로 드러나지 않고, 인물의 상태와 윤리적 통찰에 따라 변형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바람의 지배자 아이올로스와 오디세우스가 처음 만났을 때, 아이올로스는 한 달 동안 성심을 다해 환대하며 트로이 전쟁의 무용담을 경청하고, 떠나는 손님에게 유리한 서풍을 제외한 모든 역풍을 소가죽 자루에 담아 선물로 건네며 모범적인 호송의 의무를 다했다.

그러나 고향 이타카를 눈앞에 둔 지점에서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보물을 독차지하려는 시기심에 눈이 멀어 바람 자루를 풀어버린다. 폭풍에 밀려 다시 아이올로스의 섬으로 되돌아왔을 때 환대의 태도는 정반대로 바뀌게 된다.

아이올로스는 오디세우스의 처절한 제탄원을 매몰차게 거절하며 “율립토스의 신들에게 저주받은 자를 보살피거나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은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신성모독”이라 일갈하며 그를 쫓아낸다.

신의 진노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서 그동안의 ‘크세니아(환대)’를 거두는 행위는 자신에게 다칠지도 모르는 신의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아이아이에 섬의 마녀 키르케는 달콤한 목소리로 노래하며 나그네들을 집안으로 환대하고 반짝이는 의자에 앉힌 후, 포도주와 치즈, 꿀을 버무린 음식을 대접했다. 그러나 이 음식에는 손님들의 이성과 귀향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는 사악한 약물이 섞여 있었다.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자마자 지팡이로 쳐서 돼지로 변형시키고 우리에게 가두는 행위는, 신성한 환대의 식탁을 인간성을 박탈하고 짐승으로 격하시키는 폭력의 극치였다.* 놀란의 영화에서는 키르케가 직접 자기 손으로 병사들을 돼지로 빚는다)

그러나 헤르메스 신의 도움을 받아 신비한 약초 몰리(Moly)를 지닌 오디세우스가 키르케의 마법을 무력화하고 갈로 위협하자 상황이 역전된다.

키르케는 맹세를 통해 적의를 거두고 부하들을 다시 인간으로 되돌려놓는다. 이후 그녀의 궁전은 1년 동안 안식과 풍요를 제공하는 진정한 크세니아의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에게 지하 저승(Hades)으로 내려가 테이레시아스의 예언을 구할 것을 조언하고, 귀환시 항해의 위험을 극복할 지혜를 알려주는 인도자로 바뀐다. 치명적 비환대가 고차원적 환대로 바뀐 것이다.

오기기가 섬의 요정 ‘칼립스의 에피소드’는 ‘과잉 환대’가 낳는 역설적 폭력을 보여준다. 칼립소는 난파당한 오디세우스를 구조하여 헌신적으로 보살피고, 불



영화 스틸 컷(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

로볼사를 약속하며 그를 배우자로 삼고자 한다.

그녀의 동굴은 자연의 향기와 포도 넝쿨이 가득한 지상 낙원이었다. 그러나 손님이 자유의지로 떠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그를 섬에 강제로 묶어둔 행위는 환대의 본질적 계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불법적 감금이다.

나그네가 머무를 때는 기꺼이 환대하되 떠나기를 희망할 때는 즉시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환대의 대원칙이 그녀의 이기적 사랑에 의해 훼손된 것이다.

밤에는 칼립스의 침대에서, 낮에는 해변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오디세우스의 고통은 아무리 편안하고 풍성한 물질적 풍요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적 귀향 의지와 자유를 제거하는 과잉된 친절은 본질적으로 비환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5. 이상적 환대 자세히 보기: 파이악스 족의 완전한 크세니아와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크세니아

『오디세이아』 6권-13권까지 펼쳐지는 스케리아 섬의 파이악스 족 서사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크세니아의 모델을 보여준다. 오디세우스는 칼립소의 섬을 떠나 바다의신 포세이돈의 폭풍우에 뒤흔들기 부사지고, 알몸으로 파이악스 족의 섬에 표류한다.

오디세우스를 발견한 ‘나우시카아’공주는 당황한 시녀들을 꾸짖으면서 “이 불운한 사람은 표류하다가 이곳에 왔으니 이제 우리가 이분을 보살펴드려야 해. 나그네와 거지는 모두 제우스께서 보내신 자들이고, 작은 도움도 그들에게는 소중하니까. 그러니 애들이 나그네에게 먹일 것과 마실 것을 내주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강물에 목욕을 시켜드려라”라며 제우스법의 실천을 종용한다.(6권 206-210)

나우시카아는 오디세우스에게 의복과 올리브 기름을 건네 쫓겨 한 뒤 도성으로 들어오는 안전한 경로를 안내한다.

궁전에 도착한 오디세우스는 알키노오스왕에 의해 환영되고, 알키노오스왕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라오다마스)의 자리를 내어주고 극진하게 음식을 대접한다. 파이악스 왕궁에서 펼쳐지는 이 환대는 호메로스식 환대 의례의 전형적인 하이라이트를 보여준다.

알키노오스는 나그네의 이름과 출신, 목적을 전혀 캐묻지 않은 채 성대한 환영 잔치를 베풀고, 음유시인을 불러 영웅들의 노래를 들려주며 체육 경기를 개최하여 나그네의 파근과 슬픔을 위로한다.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동안의 여정을 밝히는 내용이 9권부터 12권까지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파이악스인들은 깊은 감동을 받고 오디세우스에게 막대한 양의 금과 은, 청동 술과 정교한 직물들을 선물로 준다.

이 선물들은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에 서 획득했다가 바다에 수장시킨 전리품 전부를 합친 것보다 많다. 그뿐만 아니라, 파이악스인들은 카집이나 노가 필요없이 선원들의 마음과 뜻을 읽고 스스로 항해하는 빠른 배를 제공하고, 깊은 잠에 빠진 오디세우스를 눕혀 하룻밤 사이에 고향 이타카의 모래사장에 안전하게 상륙시킨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환대는 비극적 결말을 초래한다. 자기 아들의 눈을 찔러버린 오디세우스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바다의신 포세이돈은 자신의 원수를 고향으로 데려다준 파이악스인들에게 격노하여, 귀향하던 그들의 배를 돌로 변하게 하고 순바닥으로 내리쳐 바다 밑바닥에 깊이 박아 버린다(13권 160-165)

크세니아의 실천이 인간의 세계에서는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막중한 위험과 자기희생을 동반할 수 있다는 역설을 보여준 것이다.* 놀란의 영화에서는 파이악스인들의 서사는 다루지 않는다)

6. 이타카 내부의 환대와 적대: 에우마이오스의 환대와 108명 구혼자들의 출대

오디세우스가 마침내 당도한 고향 이타카는 환대 윤리의 참된 가치와 그 파괴적 타락이 첨예하게 격돌하는 무대가 된다. 아테나 여신의 마법으로 누추한 늙은 거지의 형상을 한 오디세우스는, 충직한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의 초라한 오두막과 오만한 108명의 구혼자들이 점거한 호화로운 왕궁을 각각 방문하면서 환대 윤리를 시험한다.

에우마이오스의 오두막에서 이루어지는 크세니아는 환대의 가장 순수한 면을 상징한다. 사나운 사냥개들이 달려들 때 거지를 구해낸 에우마이오스는 그가 비천한 유랑 길인임에도 조금의 망설임 없이 오두막 안으로 맞이하여 뺨뺨한 나뭇가지를 쏘고 그 위에 자신이 침상으로 쓰던 산염소 가죽을 깔아 자리를 마련해준다.

에우마이오스는 노예 신분으로서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최선의 가족인 어린 돼지 두 마리를 정성껏 잡아 손님에게 바친다. 감격한 오디세우스가 이 정성 어린 환대에 제우스의 축복이 내리기를 빌자, 에우마이오스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명 대사를 남긴다.

“나그네여, 나그네와 거지는 모두 제우스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니 설령 그대보다 못한 자가 왔다 해도 나그네를 홀대하는 건 도리가 아니오.”(14권 56-58)

에우마이오스는 손님이 식사를 끝낼 때까지 그의 출신을 캐묻지 않으며 밤이 깊어지자 휴관을 피할 수 있도록 자신이 아끼던 두꺼운 겨울 겹옷을 벗어 덮어준다. 자신은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가 주인(오디세우스)의 가족을 지키며 밤을 보낸다. 에우마이오스의 이러한 태도는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인간의 영혼 속에서 신을 경외하는 경건함과 손님에 대한 깊은 동정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울림이 된다.

반면, 이타카의 왕궁에서 벌어지는 구혼자들의 행태는 환대 윤리를 사적으로 기만하고 권력 찬탈에 이용한 행위이다. 크세니아의 규범상 손님은 주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절제하며 공경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구혼자들은 주인이 부채한 궁전을 무단으로 점령한 채, 오디세우스의 아내인 ‘페넬로페’를 압박하고, 매일 같이 주인의 양과 소, 살진 돼지로 배를 불리며 왕의 가산을 탕진하였다. 게다가 거지의 모습으로 음식을 구걸하러 들어선 오디세우스에게 구혼자들이 가한 폭력과 적대는 제우스 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구혼자들의 우두머리인 ‘안티노오스’는 거지를 잔치상의 오물로 취급하며 폭언을 퍼붓고 발판을 짊어 던져 오디세우스의 등과 어깨를 강타한다. 구혼자 무리 중 암피노모스가 혹시 저 거지가 변장한 신일지도 모른다”며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혼자들의 오만(히브리스 hybris)은 박대를 멈추지 않았다.

22권에서 자행되는 궁정 유희 학살극은 오디세우스 개인의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크세니아를 능멸한 자들에 대한 ‘제우스의 정당한 심판이자, 정의(dike)의 집행’으로 볼 수 있다.

7. 결론 : 환대 vs 박대의 함의

1) 『오디세이아』 전반에 걸쳐 환대와 비환대가 끊임없이 엇갈리는 교차 구조는 인생길 여정 자체가 환대비환대(환대)의 연속임을 보여준다,

오디세우스가 낯선 해안에 표류할 때마다 던지는 정형화된 표현인 “아 내 세가 처량하구나 나는 또 어떤 사람들의 땅에 온 것인가? 그들은 오만하고 야만적이며 정의롭지 못한 자일까? 아니면 나그네에게 호의적이고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자일까?”라는 탄식은 이를 잘 보여준다.(6권 119-121, 8권572-579, 9권 175-176, 13권200-202)

2) 호메로스의 작품에서 오만(히브리스)을 규정하는 잣대는, 종족의 종류나 기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손님을 어떻게 대접하며 크세니아(환대)를 아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파이악스족처럼 완벽하고 흠 없는 환대자로 설 수 있는가 하면, 나그네를 도륙하여 먹어 치우는 외눈박이 폴리페모스나 라이스트리곤인들과 같이 추락할 수도 있다.

크세니아의 규범이 작동하지 않는 키클롭스의 동굴에서 오디세우스는 살아 남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우티스’(Outis, 아무도 아닌 자 Nobody)’라고 속인다.



타인에 대한 환대가 사라진 곳에서는 인간의 이름과 존엄성 역시 소멸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파이악스 왕궁의 완전한 환대에서 오디세우스는 비로소 “나는 오디세우스다”라며 잃어버렸던 영웅의 이름을 드러낸다.

이타카에 도착하여 길인의 탈을 쓰고 나타난 오디세우스의 모습은, 환대 규범이 사회 구성원들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시험대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 비천한 자의 행색을 한 왕을 맞이한 에우마이오스의 환대와 구혼자들의 적대는, 그들의 외적 신분이 아니라 내면의 도덕적 정체를 발가벗기는 폭로이다.

3) 환대와 비환대의 교차 배열은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이유가 된다.

서사시의 플롯은 환대를 파괴하거나 악용한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파멸을, 환대를 온전히 실천한 자들에게 명예와 보상이 주어진다. 손님을 잡아먹는 폴리페모스는 시력을 잃고 불구가 되었으며, 주인의 환대를 찬탈하고 악자를 능멸한 구혼자들은 궁전 바닥에 피를 뿌리며 죽어갔다.

반대로 누추한 움막에서 거지를 지극 정성으로 섬긴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영예를 얻었으며, 이 방인에게 최선의 배려를 다한 파이악스인들은 이후 후손들에게 불멸의 찬가를 남겼다.

결국 『오디세이아』에서 전개되는 환대와 비환대의 반복적 교차는, 트로이 전쟁이라는 야만적 파괴의 시대를 통과한 인류가 어떻게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세계 질서를 재구축할 수 있는가를 탐색한 ‘윤리적 오디세이’라 할 수 있다.

(* 이런 면에서 놀란 감독은 주인공 오디세우스를 전쟁영웅으로 묘사하기보다, ‘거대 목마(giant wooden horse)’로 상대방을 기만하고, 학살과 약탈을 자행한 후 죄책감(guilt)에 고뇌하는 한 인간으로 각색시켰다고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드리는 편지



권준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저와 내내는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튀르키예 아욱리치와 비전 트립을 마치고 이스탄불에서 팀원들과 헤어졌습니다. 팀원들은 시애틀로 돌아가고, 저와 내내는 폴란드 바르샤바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들어왔습니다. 국경을 넘어 하루를 머문 뒤 카이우에 도착했습니다. 카이우에서는 지금도 공습 사이렌이 울립니다.

최근 많은 공습이 있었고, 밤에도 드론 공격을 알리는 사이렌이 들립니다. 지금도 한 시간에 한 번 팔로 드론 공격이 온다는 사이렌이 울리는데, 저도 처음 두 번 정도 지하 벙커로 들어갔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숙소에서 다 무시하고 잤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면 벙커도 필요 없고, 드론은 오는 시간이 40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에 대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곳의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 속에서도 집을 지키고, 일터로 가고, 아이들을 돌보며 다시 일상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포로

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이 삶을 흔들고 있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몽클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여전히 사람들을 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도움이 필요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잠시 쉬고, 안전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것이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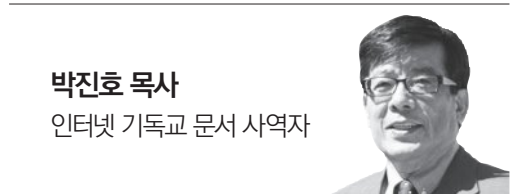
그래서 이곳의 목회자들은 힘들고 지쳐 있으면서도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오늘도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보내는 작은 관심과 기도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이 땅에 평화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긴 겨울을 지나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후원이 하

나남께서 이 땅을 살리시는 일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세우고, 이 땅에 다시 소망을 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시애틀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신 성령께서 함께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있는 곳은 다르지만, 섬기는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국경을 넘고, 우리의 주님은 이 땅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끝까지 소망의 등불로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와 동역의 자리에 형제와 함께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참된 전도자로 세상 앞에 서있는가?



박진호 목사
인터넷 기독교 문서 사역자

사도행전 4:13-31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4:20)
사두개인들이 자기들 허락도 받지 않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도들을 잡아 문초했으나 특별히 꼬투리 잡을 겨리가 없었다. 학문 없는 범인들이라 모략을 꾸며 조직적으로 제사장들에게 항거할 그릇이 안 되며, 예수의 제자였기에 예수 이름으로 전할 수밖에 없고, 불구가 나온 당사자가 있으니 거짓말도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는 올바른 전도의 모범이다. 자신의 지식이 아니며, 실제로 예수님을 대면한 자들이, 그분 은혜를 입은 분명한 체험을 전해야 한다. 특별한 종교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다. 범인이 범인에게 자기와 만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게 즉, 어떤 거짓 모략 불법도 개입되지 않게 전하는 것이 전도다.

유대종교를 관장하는 제사장들로서 자기들보다 예수 이름이 민간에 퍼지는 것이 가장 두려워 예수 이름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위협했다.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이 사십여 세 즉, 꽤 찬 나이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다. 또 나면서 불구로 사십 년을 지냈다. 인간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자유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배운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도가 너희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럼 사도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말해야 할

내용은 이 기적은 오직 예수 이름의 권능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이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예수의 제자인줄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데도 고집 받은 자가 은과 금을 줄 수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사도의 말을 푹푹히 들었는데 어찌 예수 이름을 빼고 전할 수 있으며 그럼 또 누가 믿겠느냐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치료한다고 모함했듯이 사탄과 그의 종들도 병을 고친다. 치유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는지가 관건이다. 사두개인들도 유대 지도자인 만큼 영악했다. 예수의 이름만 빼면 민간 주술사가 행하는 사교(cult)가 되어버린다. 또 자기들이 범한 십자가 처형의 불법도 가려지고 무엇보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엄청난 진리가 묻힌다. 우쭐한 백성들마저 인정하는 엄연한 사실과 진리를 억지로 부인하려 든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돈이 주는 맛에 취해 사탄의 종이 되었다. 성경이 다윗을 통해 예언한대로 허사를 경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반면에 학문 없는 범인들인 사도들은 구약예언을 정확히 해석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 제사장들의 위협을 중지시켜 달라고 하지 않았다. 외부 여건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전도자로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 많은 표적이 일어나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백성들이 보고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 바깥 말해 자기들은 얼마든지 계속 핍박받겠다는 뜻이다. 곧바로 응답이 안 될 리가 없다. 우리에게 이런 전도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범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대면한 은혜의 체험이 있고 외부의 어떤 위협에도 내 앞에 탁월 고난을 얹어 달라고 하지 않고 핍박 중에도 나로 담대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대로 실천하는가?

무엇을 하며, 우리는 자라고 있는가?



이진호 목사
시애틀 십자가교회

이번 한주는 유난히 밤이 더웠습니다. 잠자리에 들어도 쉽게 잠이 들지 않았고 어렵게 잠이 들어도 한 시간에 한 번씩 깨곤 했습니다. 그런데 핑계가 좋아서인지,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루 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할 내용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전에는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하나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의 작은 아픔이 생각나고, 지나간 대화 한마디가 마음에 걸리고, 교회의 작은 일 하나까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뭐든지 하면 할수록 더 느는 거야”

참 맞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꾸준히 하면 그것이 자랍니다. 운동을 하면 체력이 늘고, 책을 읽으면 지식이 깊어지고, 악기를 연습하면 실력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걱정도 오래 하면 걱정이 늘고, 불평도 반복하면 불평이 늘어납니다. 잘못된 습관도 계속 반복하면 더 단단해져서 나중에 없애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질문이 마음에 생겼는데요. 나는 지금 무엇을 열심히 하며 자라고 있는가?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고, 무엇을 자주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반복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마음을 쏟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을 듣는 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6-18)”고 말씀합니다. 삶을 기도와 감사로 채워가고 하나님, 기도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고, 감사하면 감

사의 눈이 더 열립니다. 마음을 가까이하면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1년 후에도 계속 자라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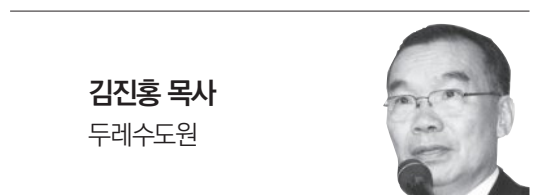
더 많이 염려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더 쉽게 불평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줍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감사를 심고, 사랑을 심으세요. 오늘의 작은 기도가 내일의 큰 믿음이 되고, 오늘의 작은 순종이 내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정성껏 하세요. 그러면 어느날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라게 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행전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에서 〈오직〉이란 말은 유일한 길이란 의미입니다. 크리스천이 되는 길은 오로지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강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권능〉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Dunamis〉입니다. 이 권능이란 말은 4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는 믿는 자들로 구원 받게 하는 능력입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둘째는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셋째는 낙심하는 자들과 좌절하는 자들에게 용

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능력입니다.

넷째는 병들고 일그러진 역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로지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능력을 받고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말이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증인이라 말은 헬라어로는 〈Martyria〉입니다. 이 말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순교자, Martyr입니다.

혹독한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 시절,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건 순교로 이어졌기에 증인이라 말과 순교자란 말이 같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순교자의 다짐으로 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챗봇이 아닌 이웃의 손을 잡으라: 참된 공동체의 회복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한나 레이프 <사진>의 기고글인 '챗 GPT가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롭게 만들고 있을까?(Is ChatGPT making us lonelier than ever?)'을 9월 6일(현지시간) 게재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1980년대 말,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 웬델 베리(Wendell Berry)는 손으로 글을 쓰는 방식을 버리고 컴퓨터를 사용하라는 주변의 강한 권유를 받았다. 그 압박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결국 「내가 컴퓨터를 사지 않으려는 이유(Why I Am Not Going to Buy a Computer)」라는 에세이까지 발표했다.

그 글에서 베리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몇 가지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 좋은 것을 대체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가족과 지역사회 안에서 맺는 관계도 포함됐다.

베리의 글쓰기 과정에는 아내가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그는 컴퓨터가 글쓰기의 효율을 높여줄지는 몰라도, 아내와 함께 나누던 작업 과정과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그는 컴퓨터를 사지 않았다.

당시에는 이런 선택이 다소 고집스럽고 시대착오적으로 보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이후 컴퓨터는 일상과 업무의 당연한 일부가 됐고, 아이폰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가 그 뒤를 이었다. 이제 우리는 챗GPT(ChatGPT), 그록(Grok), 클로드(Claude)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까지 들어섰다.

책상 위의 컴퓨터에서 호주머니 속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에서 소셜미디어의 온라인 공동체로, 다시 그곳에서 AI 동반자로 이동하는 동안 기술은 끊임없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대신할 새로운 방법을 제공해 왔다.

문제는 기술이 인간을 연결해 준 만큼, 동시에 더 고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 더 연결됐지만 더 외로운 시대

2026년 가정연구소(Institute for Family Studies)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남성 상당수가 외로움과 고립감을 호소했다. 조사에서는 절반이 넘는 남성들이 외롭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고, 상당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거나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친구 관계 역시 약해지고 있었

다. 적지 않은 남성들이 가까운 친구가 두 명 이하라고 응답했고,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답한 비율도 상당했다.

연구에서는 여러 생활 습관과 외로움의 상관관계도 살펴봤다. 청년 남성 가운데 높은 비율이 거의 끊임없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었고, 비디오게임과 온라인 도박, 음란물 소비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런 통계가 곧 기술 하나가 외로움의 모든 원인이라는 뜻은 아니다. 외로움은 가족 구조와 경제적 상황, 연애와 결혼, 직장, 지역사회, 정신건강 등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오늘날의 기술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혼자서도 가능한 삶'을 만들어냈다.

망치가 필요하면 이웃집 문을 두드릴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된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껴도 직접 말을 걸기보다 데이팅 앱에서 버튼 하나를 누르면 된다.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불편한 대화를 나누는 대신, AI 챗봇을 열어 즉각적인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도 있다.

모든 것이 더 편리해졌다. 그러나 바로 그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필요로 하는 순간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 사람에게 필요한 마찰까지 없애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간관계에는 본래 불편함이 있다.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하고, 거절당할 수도 있으며, 오해를 풀기 위해 긴 대화를 해야 한다. 친구는 언제나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지 않는다. 가족 역시 우리의 모든 판단을 긍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인간관계가 깊어진다. 서로 양보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는 법을 익힌다. 때로는 누군가의 충고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도 한다.

반면 기술은 점점 이런 '관계의 마찰'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원활할 때 접속하고, 싫으면 끄면 된다.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느끼거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AI 챗봇은 지치지 않고, 약속이 있다고 먼저 떠나지도 않으며,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편리함인 동시에 위험일 수 있다. 기계가 인간관계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대체재가 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배우는 인내와 책임, 갈등과 화해의 능력을 잃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Gemini

◆ 아이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기술이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소셜미디어 공간에는 사이버 괴롭힘과 성착취, 신분 위장 사기, deepfake 음란물, 불법 약물 거래와 같은 직접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이와 함께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이 불안과 우울, 신체 이미지 문제, 자해 등의 정신건강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

AI 챗봇이 청소년의 정서적 삶에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청소년은 AI 챗봇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친구나 연인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현실의 인간관계에서는 얻기 어려운 즉각적인 공감과 끊임없는 관심을 AI에게서 경험하면서 정서적으로 깊이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AI는 인간처럼 책임을 지는 존재도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사용자를 사랑하거나 이해하는 인격체도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 일부 비극적인 사건에서는 청소년들이 AI 챗봇과 장기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해나 자살과 관련된 위험한 대화를 이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관련 기업의 안전장치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법적·사회적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사건 하나하나에서 AI가 어떤 정도의 인지적 역할을 했는지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취약한 상태의 사용자가 AI에게 지나치게 의존할 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큼은 가볍게 넘길 수 없다.

AI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이 가장 위험한 특징일 수도 있다. AI 챗봇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사용자들을 쉽게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은 반대한다. 친구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고, 배우자는 우리의 행동에 실망할 수도 있다. 부모나 목회자, 동료도 듣기 싫은 말을 건넬 수 있다.

AI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대화를 지속시키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적절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사용자의 생각을 지나치게 긍정하거나, 잘못된 전제를 충분히 교정하지 못하는 이른바 '아침(sycophancy)'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용자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긍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지금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가족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진정한 관계에는 위로뿐 아니라 책임이 있다. 그래서 AI가 아무리 인간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흉내 낼 수 있다 해도, 그것이 실제 공동체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 웬델 베리의 질문을 다시 꺼내야 할 때

소셜미디어와 AI 챗봇이 곧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기술을 모두 없애자는 식의 접근도 현실적인 답이 되기 어렵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웬델 베리가 오래전 던졌던 질문을 다시 꺼내는 일일지 모른다.

이 기술이 인간의 삶에서 이미 존재하는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드는가, 아니면 그것을 대체하고 있는가? 가족과 더 가까워지도록 돕고 있는가, 아니면 한집에서도 각자 화면만 바라보게 만드는가? 지역사회와 연결해 주는가, 아니면 온라인 세계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는가. 기술을 통해 일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 확보한 시간을 사람들과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시간을 다시 또 다른 화면으로 채우고 있는가?

베리는 기술의 발전이 언제나 가족의 행복과 공동체의 건강, 하나님 사랑에도

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때로 "선을 긋기 어려운 곳에서 선을 긋는" 용기라고 말했다.

우리가 몇 년 사이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믿게 된 것들 가운데 일부는 사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 외로움의 해답은 더 많은 연결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다

흥미롭게도 앞서 언급한 청년 남성 대상 조사에서는 신앙 기반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외로움과 불안, 우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결과도 제시됐다.

이것이 단순히 "교회에 가면 모든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에는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며, 교회 역시 그러한 도움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간에게 실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고 식사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관계가 필요하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결실하면 안 부를 물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 힘을 때 함께 울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기독교 신앙에서 교회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회는 단순히 설교를 듣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건물 이 아니다. 신약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한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의 지체가 되어 짐을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용서하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다.

AI가 성경 구절을 찾아줄 수 있다. 기도문을 작성해 줄 수도 있고, 신학적 질문에 답할 수도 있다.

하지만 AI는 우리와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병원 침대 곁에 실제로 앉아 손을 잡아줄 수도 없다. 장례식장에서 함께 울거나, 우리의 잘못으로 상처받았을 때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인격적인 관계 맺을 수 없다.

기독교 공동체가 제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실제적인 관계다.

◆ 기술을 버리는 것보다 경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해답은 모든 컴퓨터를 내다 버리거나 챗GPT 계정을 반드시 삭제하는 데 있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다.

화면을 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잠들기 전 한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내

려놓을 수 있다.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직접 만나 식사를 할 수도 있다. 무엇인가 필요할 때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도 이웃의 필요를 돌아볼 수 있다.

비디오게임을 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족과 보드게임을 할 수도 있다. 주일예배가 끝난 뒤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기보다 잠시 남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레시피가 생각나지 않을 때 검색창을 열기 전에 어머니에게 전화해 물어볼 수도 있다.

혼자 힘든 일을 견디고 있다면 AI와 몇 시간씩 대화하기보다 신뢰할 만한 친구나 목회자, 상담사에게 연락하는 편이 훨씬 중요할 수 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를 사소해 보인다. 그러나 공동체는 바로 이런 사소한 행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 우리는 편리함보다 사람을 더 필요로 한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인스타그램과 챗GPT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도구가 인간관계를 대신하기 시작할 때다.

기술은 빠른 답을 제공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인간은 정보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받고, 용서받고, 책임을 지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존재다.

기독교는 이런 인간의 필요를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깨어져 있으며, 복음은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선포한다.

그래서 기술을 덜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비워진 공간을 실제 사람과 공동체, 하나님을 향한 관계로 채워야 한다.

웬델 베리가 말했던 것처럼, 때로는 선을 긋기 어려운 곳에서 선을 그어야 한다.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기술 가운데 일부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고, 다시 사람을 향해 걸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화면에서 눈을 들어 옆 사람을 바라보라.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함께 식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며,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삶을 선택하라.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인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그 관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의 몸 된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

다니엘 최 기자

행복한 동행 전국 지역 지부 및 센터 모집

교회와 선교를 잇는 '행복한 동행'이 전국 지역 파트너를 찾습니다

주요 유료 서비스

부모님 안부/건강, 맞벌이 육아 동행
어르신 정서 지원/치매 예방
반려동물 산책&장례
법률/병원 입·퇴원 동행
생활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

모집 대상

동행매니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자 및 시명감 있는
교회/단체 환영!



앱(App) 기반 전국 매칭 시스템 구축

2025년 11월, 구글/애플 앱스토어 전격 출시!

앱스토어 검색 "동행365"

전국 지부, 센터 문의

1544-1322

010-7546-7933

동행매니저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기타 민간자격증 자체 교육 후 발급 가능합니다



www.gacci.net
행복한 동행

목회상담치유

왜 그런가?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는가?
나는 왜 목회의 적응이 안 되는가?
나는 왜 목회지를 자주 이동 하는가?
나는 목회를 실패한 것일 가?

◆ 답답하고 허전하고
심란할 때 상담해주세요!

이 종 운 목사
010-3809-648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움6길 4

천혜의 자연환경, 영동 풍성기도원 매매

-위치: 충북 영동군 영동읍 479-8 외 1건
(영동역 5~10분 거리)
-규모: 토지: 834평 / 건물: 139.75(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
-수용인원: 100명 이상 수용 가능.

[시설 현황]

1. 제1·2성전, 방 10개(에어컨 완비), 기도실 5개,
화장실 7개, 주방 3개, 넓은 주차장, 아름다운 조경,
2. 바로 앞 시냇물(수영 및 낚시 가능)

[특별 혜택]

1. 운영비 제로: 태양광(9kw) 및 지하수 사용으로
전기·수도료 무상 수준.
2. 성물 무상 양도: 강대상, 음향, 피아노,
의자 등 몸만 오면 즉시 운영 가능
매매가: 9억원 (답사 후 협의 가능 / 용도변경 가능)

경북 영주의 수정교회 및 주택부지

-위치: 영주시 가흥동 637-7
-대지: 76평 -매매가: 1억 5천만원

매/매/문/의
010-9679-8275, 010-9883-8275

2026년 경기예술신학원 학/생/모/집

설립배경

문화전쟁의 시대 세상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의 대결의
시대에 기독교 문화를 대중화 하고 예수 신앙으로 무장된
예술인을 배출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목적을 둔다.



원장 장대수 박사

학 력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졸업
광신대학교 신학과졸업
개신대학원대학교 석사(사회복지전공)
개신대학원대학교(Ph.D 철학박사)

경 력

전 극동방송 드라마 성우
세익스피어, 오셀로, 말괄량이길들이기
대한민국 연극제 최인훈작
한스와 그레텔(주연)
싸르르작, 이강렬연출(주연)
출구없는 방 출연(주연)
선객: 주연

개강: 3월 학제: 3년
수업: 매주 월,화(오후6시) 학과: 연극선교학과

입학문의: 010-6325-3916
주소: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 83 현대프라자 4층

지구촌 복음방송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 덕 겐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터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샘교회 담임목사
-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現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現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강사 약력

- 1995.9 개척
- 2000.4 1차 성전건축
- 2008.1 2차 성전건축

한샘 교회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끊어짐

방향 및 성령의 역사

신청 방법

이승현 목사:
010-8913-7777
한샘교회: 032-512-3375

지원 대상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 낙도·오지교회
- 3 無 부흥회:
- 사례, 숙소, 식사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독자 특별 혜택

정사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폴,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추천사

장로님께서 철수를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 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산교회)

성경의 역사 히브리어의 기원 (2)

**현대히브리어
히브리어의 교혼**

현대 히브리어의 부활은 전 세계 다양한 문화에 영감을 주었다.

Simon Griver -

히브리어는 구약의 언어였으며, 약 3,000년 전인 제 1성전 시대에 나오는 이스라엘인들에 의해 사용된 언어이다. 천 년 후, 조상들의 고향에서 로마군에 의해 추방당한 이산 유대인들은 그들이 정착한 국가의 언어를 쓰거나 히브리어와 다른 언어를 섞어 이디쉬(Yiddish, 히브리어-독일어)나 라디노(Ladino, 히브리어-스페인어)같은 새로운 히브리어 방언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결코 잊지 않았으며, 이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하는 기도과 문학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100여년 이전에 유대인들이 그들 조상의 땅으로 귀환하기 시작할 때, 리투아니아에서 온 이민자 엘리에제르 벤 예후다(Eliezer Ben Yehuda)는 성경 히브리어를 현대 일상생활에 접합시키는데 헌신하였다. 그리고 웨일즈에서 아제르바이잔, 카탈로니아에

서 뉴질랜드까지 전 세계의 작은 나라들은 수백 년 이상 일상생활에 사용되지 않았던 언어를 소생시킨 이스라엘의 경험에 감동 받았다.

“웨일즈어는 히브리어의 경험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언어입니다.” 암논 사피로(Amnon Schapiro), 히브리어 아카데미 연구원은 설명한다. “1960년대 웨일즈어 수업을 위한 국가적 네트워크가 히브리어 모델에 근거하여 세워졌습니다.” 심지어 웨일즈사람들은 웨일즈어 수업을 새로운 dlas자들에게 현대 히브리어를 가르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히브리어 수업에 붙여진 이름인 “울판(Ulpan)”으로 불렀다. “물론 웨일즈 사람들은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피로는 덧붙여 말한다. “그곳의 웨일즈어 사용자 수는 영어의 영향으로 침식당했습니다. 출판의 도움으로 그러한 경향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까팔로니아와 바스크어를 익혀왔던 프랑코 사후에 까팔로니아와 바스크어가 크게 잠식한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1980년대 출판에서 사용되는 방법 등을 배우기 위해 까팔로니아의 사절단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스라엘에서도 출판의 위상은 절대적

이다. 새로운 이민자들은 기본적인5개월의 과정을 이수하며, 추가로 그 이후의 고급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민을 담당하는 유대인 가구(The Jewish Agency)는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과 히브리어를 미리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세계의 출판 네트워크 또한 운영하고 있다. 1990년대 구 소련방에서 잠재 이민자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기 위해 주재하였던 유대인 가구 관리들은 새로이 독립한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그루지아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국가 언어 회화에 관해 조언해 주었다. “그곳의 문제는 이미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었으므로 구어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어를 어떻게 부활시키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피로는 그의 견해를 밝힌다. “예로,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러시아 키릴 문자 알파벳만 읽는 사람들이 라틴 알파벳을 배우야 했습니다.”

히브리어 학습은 고유 알파벳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방법 때문에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것 보다 종종 복잡한 과정이 되곤 한다. 비록 대부분의 숙련된 성인 이민자들이 결코 그들의 억양이나 서투른 문장을 떨쳐버리진 못하지만 어린이의 경우 자유자재로 언어를 구사하

여 몇 달 내에 모국어처럼 능숙해지곤 한다.

연구자들은 히브리어 부활의 성공은 이스라엘 사회가 100여 개 국가로부터의 이민자가 세운 국가로 히브리어만이 모든 이들에게 공통의 언어가 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이민자들은 이웃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세계 다른 곳에서처럼 종종 이미 공용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들 선조들의 고유언어를 부활시키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언어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완고한 결정이 요구되어진다. 이스라엘 초기 유대 정착인들은 매일 의사 결정을 위해 러시아어나 이디쉬로 말하는 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만을 사용했다. 벤 예후다 그 자신은 비록 그의 어머니와 부인이 그가 말하는 단 한 단어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히브리어만을 사용하였다.

현대히브리어와 벤예후다의 삶

Carol Novis (1990.5) -

현재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에서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언어로 간주되고 엘리에

젤 벤예후다는 히브리어를 보편화시킨 위대한 선구자로 여겨진다.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서는 국가는 영토뿐만 아니라 언어를 가져야 한다고 처음부터 주장한 예후다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도로가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광신자〉

100년 전에 성자의 사람들은 엘리에젤 벤 예후다를 광신자라고 여겼다. 그의 생각은 이상할 뿐 아니라 위험했다. 대부분의 유대인 동료들은 히브리어만이 성스러운 언어라고 믿기는 했지만 예후다는 피했다. 그의 자식들은 추방당했고 그의 가족들은 거의 굶어 죽었다. 그의 첫 부인과 자식들은 병들어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는 여전히 살아 있다. 그는 히브리어만이 살아 있는 언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 모두에게 히브리어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도 말이다.

이런 예후다의 실험적인 정열에 반기를 든 사람은 그의 장남인 이타마르였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일상 언어로는 처음으로 히브리어를 사용한 사람이었다. 히

브리어를 현대 언어로 도입한 이타마르의 이야기는 드보라 오펜버그 쓴《Habachor B'Beit(E.B.Y.)》인데 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 책이다. 이 제목에는 말 장난 같은 것이 담겨 있어 번역하기가 어렵지만 대충“E.B.Y. 집안의 첫 아들”이란 의미이다.

오펜버그의 책은 루이사 메이 알코이나 몽고메리의 이야기가 북미 어린이에게 미치는 것과 같은 영향을 이스라엘 어린이에게 끼치고 있다. 오펜버그는 이스라엘 독자에게 아주 유명한 《하다샤》신문이 행한 1989년 여론 조사에서 이스라엘이 설립된 이래 그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스라엘 여성으로 선발되었다.

현재 22권이 인쇄된《Habachor B'Beit》는 유명한 랍단 히브리 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찬사를 받았으며 이스라엘 어린이에게 고전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책은 20년 전에 첫 출판되었지만 여전히 신선미와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만 하더라도 1만 부가 팔렸다.

오펜버그는 히브리어를 이스라엘 땅에 심으려는 노력에 관한 실제 이야기를 다룬 첫 작가이다.〈계속〉

【출처】 더로템 | 히브리어의 기원 | 작성자 이종호

민음의 열조들을 찾아서

윌리엄 타운센드

성경번역선교의 선구자 윌리엄 캐머론 타운센드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선교지 현지인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이다. 성경은 선교사들처럼 인식년도 필요없고 외국인이라고 배척받는 일도 없다.”

전문적인 성서번역 사역의 길을 열었던 ‘윌클리프 성서번역선교회(Wycliffe Bible Translators)’의 설립자, 윌리엄 캐머론 타운센드(William Cameron Townsend, 1896-1982)가 남긴 말이다.

20세기 성경번역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이가 성경번역선교회(WBT/SIL)의 설립자 윌리엄 캐머론 타운센드다. 그는 강한 확산과 뛰어난 지도력을 겸비한 사람이었다. 1893년 대공황으로 경제가 한창 어려울 때인 1897년 캘리포니아에서 출생한 그는 가난으로 찢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학생신앙자원운동(SVM)에서 활동하기도 했던 그는 1917년 한

대학 친구와 과테말라로 떠난 후 50년 이상의 선교사역을 계속했다.

그는 초기에 중미에서 성경을 판매하는 일을 했다. 그러나 그가 맡고 있던 넓은 시골 지역에는 20만명 이상의 카키켈 인디언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스페인어 성경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은 아직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 사이에서 자내며 그들의 언어에 익숙해지자 그 부족들에 대한 사명감을 느꼈다.

그러나 원주민의 반응은 더뎠고 오히려 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날 한 인디언이 다음과 같이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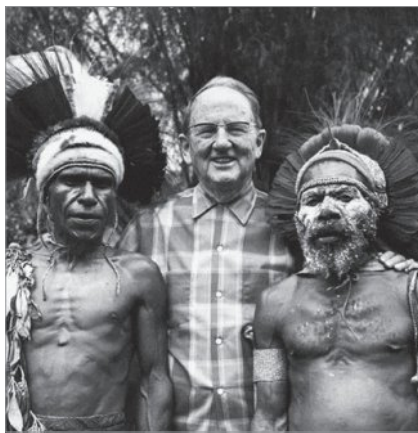
“당신네 신이 그렇게 똑똑하다면서 우리말도 모릅니까?”

이말은 그가 그후 13년을 카키켈 인디언을 위해 헌신하게 했다.

그의 당면과제는 그들의 언어에 익숙



William Cameron Townsend(1896-1982) ©www.missionary.com



해지는 것이요 그 다음은 그 언어를 글로 옮기는 것이요 결국에는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 그는 10년을 넘는 기간 동안 애를 쓴 끝에 1929년 마침내 카키켈어 신약성경의 번역을 완료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선교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후대에 평가되고 있다. 내지선교-해안선선교를 이어 미전도종족 선교 시대를 여는 시발점을 만든 것이다.

그는 학생자원운동이 낳은 또 한명의 젊은이 도날드 맥가브란과 함께 아직 복음이 미치지 않은 미개척지대가 있을

을 발견했던 것이다.

타운센드는 미전도 종족을 발견했고 맥가브란은 동질 집단이라고 부른 좀더 보편적인 범주를 발견했다.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이후, 19세기에 이르렀을 때 성경은 모두 34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19-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성서번역의 열기는 뜨거워졌다. 19세기 동안에만 500개의 새로운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으며, 20세기에는 성경의 주요 부분이 1,000개의 새로운 언어로 번역되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없다.

전세계적으로 5000여개의 언어가 있다고 추정되는데, 이 중 신약성경이 번역된 언어는 1/3 정도이며, 신구약 성경 전체가 번역된 언어는 700여개 언어뿐이다. 마복음화지역의 언어 중에서 3%만이 신구약 성서가 모두 번역되었다.

열방선교단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Proverbs 16:9 NIV
In their hearts humans plan their course, but the Lord establishes their steps.

- humans : 인간
- course : 나아갈 길, 진로(進路)
- establish : 확정(確定)하다

잡민 16장9절
인간은 마음속에서 자신의 나아갈 길을 계획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확정하신다.

카카오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행복한농촌, 함께하는KF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FC 한국농어촌공사

오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의 부르심

[좋은성경구절] 로마서 1장 1절 묵상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 정함을 입었으니”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이 한 절에는 바울의 정체성과 사명이 모두 담겨 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 백했다. 종은 주인께 온전히 속한 자로, 바울은 자신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했다. 이는 주께서 먼저 종의 형체를 입고 낮 아지신 사랑에 대한 응답이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고백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대사와 같은 존재였다. 그는 아무 것도 아닌 종으로 자신을 낮추었으나 동시에 모든 것을 맡은 사도로 담대히 세워졌다. 바울의 인생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워졌다. “내가 주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고백이 그의 신앙의 뿌리였다. 복음은 좋은 소식, 곧 승리의 소식이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소

식이 바울을 달리게 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라 고백했다. 종으로 낮아지고 사도로 세워진 그의 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이어졌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OO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고백을 따라, 우리도 주께 속한 자로 낮아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세워져야 한다.

동성찬 묵상

응답을 가로막는 교만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병 낫기를 위해 여러 차례 기도를 받았지만 아무 효험을 보지 못했다. 기도가 부족했거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다. 성령님이 내게 그 이유를 보여 주셨다. 그것은 그녀가 무척 교만하기 때문에 신유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고 싶어서도 그녀의 완악한 마음속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빈 공간이 없었다. 그녀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이 그녀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사모해야 했다. 나는 그런 그녀를 앉혀 놓고는 몇 시간 동안 아주 정중하게 그녀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죄를 알려 주었고, 내가 왜 그녀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지를 설명해 주

었다. 나는 그녀에게 고쳐야 할 점을 일러 주었다. 하지만 교만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 스스로 발견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내 실수였다. 그녀는 결코 교만을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코트를 입으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비명을 질러댔다.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그 누구보다도 의롭단 말이예요.” 그런 상태로는 병 고침도, 남을 구원하는 일도, 다른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녀는 온갖 핑계들만 열거하면서 울며불며 난리를 쳤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산고를 치러야만 한다. 산드라 웨인 「율의 기도」 중에서
출처: 햇볕같은이야기



인애 **한방갈벌**

자살과 불안장애, 불안장애와 과민성방광증후군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자살은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이 절망적인 심리 상태에서 삶을 스스로 포기할 때 일어나는 극단적 행동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스스로’라는 단어, 즉 자살이 의지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그런데 자살과 관련해 ‘의지’라는 단어가 가진 진짜 의미는 ‘부정적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 의지가 마비된 상태에서 자살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평소 정신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정상적인 판단 기능이 순간 멈춰서는 상태에서는 자살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정적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 짐작하겠지만, 그 원인 중 선두에 서는 것이 바로 우울증 및 불안장애다. 자살과 정신질환의 관련성을 따진 한 조사에 의하면 자살자의 95%가 정신질환을 하나 이상 갖고 있었으며, 이중 우울증과 불안장애(87%)의 비중이 가장 컸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혹시 나도 우울증, 불안장애인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씩은 이 증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소 무거운 말들로 서설이 길었다. 결국 과민성방광 얘기를 꺼내기 위해 이렇게 긴 얘기를 한 것이다. 이 병을 가진 환자들 대부분이 불안장애를 안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이 병이 불안장애를 더 악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불안장애가 자살과도 연결된다고 하니, 그런 점에서도 과민성방광증후군은 반드시 치료돼야 할 질환이다. 빈뇨, 요절박증 같은 하부요로증상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 이로 인한 불안감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준다. 시도 때도 없이, 자신도 미처 대비하지 못한 때에 소변이 나온다고 생각해보라.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그 불안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요즘엔 이

러한 불안감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연결된다 하여 ‘빈뇨-불안 증후군’(FAS)이라고 따로 명명하기도 한다. 한의학은 불안한 마음, 조급한 마음에서 화(火)가 생기고 그 화(火)가 방광으로 몰려 생기는 병을 과민성방광증후군으로 정의한다. 이미 설명했듯이 이 병은 그 원인이 되는 불안한 마음을 또한 더 깊어지게 하기에, 이 병에 걸렸다면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다. 과민성방광증후군을 치료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이 불안장애에 대한 치료를 병행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의학은 과민성방광증후군을 두 가지 원인으로 뚜렷이 구별한다. 방광이 약해진 것이 그 원인이라는 몸의 측면과,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그 원인이라는 심리적 측면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가지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한의학이 과민성방광증후군 치료에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묵상 책갈피

성령의 열매란

본지는 [묵상 책갈피] 코너를 통해 신앙도서에서 은혜롭고 감명 깊은 내용을 선택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성령은 ‘다른 예수’ 혹은 예수의 영으로(예수의 인격이 당신 안에 거하는) 가장 적절히 표현되었다. 만일 당신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의 충만함이 그의 생명과 그의 능력과 그의 성품으로 당신 안에 거하시는 것이며, 당신의 활동과 말을 통해, 당신을 통해 예수의

성품이 흘러나리라.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의 결과이다. 그 이유는 열매란 실제로 성령의 특성의 발현, 즉 영광의 소망이신 당신 안에 거하시는 그

리스도의 성품의 투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계속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있으면, 과거 예수께서 지상에 인간 몸을 입고 계실 때 행하신 일들을 당신도 행하리라. 그뿐 아니라 그가 요한복음 14:12에서 약속하신대로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 이유는 그가 당신을 통해 그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 선함, 친절, 신실과 온유와 절제를 널리 확산하도록 일하시기 때문이다. 제임스 로빈슨 「새로운 성장」 생명의말씀사 P80



교계

2026년 9월 11일 교계 주요 단체 일정표			
행사 및 소식명	주최 및 주관	시간	장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본부 대외 공무 1. 국무총리 초청 조찬모임 (총회장 공식 참석) 2. 미트리 라헬 저자 초청 북토크 (총회 사무총장 공식 배석)	주최/주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본부 (북토크 주최: NCCK·한국 YMCA전국연맹 / 주관: 한국예큐메니컬연구원 등)	1. 07:00 ~ 09:00 2. 18:00 ~ 19:00	1. 국무총리 관저 2.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
노량진정책연구원 제2차 정책토론회 (상중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해외 선교비 송금 과세 tune 대응책 모색)	주최 및 주관: CTS문화재단, 노량진정책연구원	10:00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내 주요 집회 1. 제100회 추계 지구역장 세미나 및 특별새벽기도회 (9월 첫째 주 특별새벽예배 병행 / 설교: 황덕영 목사) 2. 금요성령대망회 (사회: 김정환 목사, 설교: 황덕영 목사)	주최 및 주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교회	1. 05:30 2. 20:3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
국제가사원 제953차 목회자·평신도 세미나 (가정교회 사역 집중 세미나 개최일 / 강사: 조상현 목사)	주최 및 주관: 국제가사원 (가정교회사역원), 안양 목양교회	당일 개최 (9.11 ~ 9.13)	경기 안양시 동안구 목 양교회

2026년 9월 주요 장로교단의 제11회 정기총회를 앞둔 9월 11일(금요일), 한국 교계에서는 해외 선교비 과세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토론회를 비롯해 교단 본부 임원들의 공식 대외 공무와 개교특별 주 요 기도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CTS문화재단 노량진정책연구원은 11 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에 서 '선교비 증여세 대응을 위한 제2차 정 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 해 촉발된 해외 선교비 송금 과세 위험 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교계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

이다. 이기용 신길교회 목사, 이철 CTS문 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하며, 회계사와 법률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선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본부 임 원진은 11일 당일 대외 공무 일정을 소 화한다. 예정통합 총회장은 오전 7시 국 무총리 관저에서 열리는 국무총리 초청 조찬모임에 교단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 다. 이어 총회 사무총장은 오후 6시 서 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 YMCA전국연맹 주최, 한국예큐메니컬 연구원 주관으로 열리는 팔레스타인 미 트리 라헬 목사 초청 북토크에 배석할

예정이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 음교회는 대성전에서 당일 정기 집회를 연속 진행한다. 오전 5시 30분에는 '제 100회 추계 지구역장 세미나 및 특별새 벽기도회'가 열리며 황덕영 목사가 설교 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8시 30 분에는 김정환 목사의 사회와 황덕영 목

사의 설교로 금요성령대망회가 진행될 계획이다.

목회 훈련 일정으로는 국제가사원 주 관 '제963차 목회자·평신도 세미나'가 11 일부터 13일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목 양교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사 전 등록자를 대상으로 조상현 담임목사 가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선교

2026년 9월 11일(금) 선교단체 주요 일정표			
행사 및 소식명	주최 및 주관	시간	장소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월례 조찬기도회 및 학술 세미나 (주제: "순교자인가, 침략자인가? 로버트 J. 토마스 160년, 한국교회가 다시 묻는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KEF)	오전 07:00	서울 서초구 방배로9길 23 백석대학교교회 교육동 10층 아트홀
콜로라도 뉴라이프 선교 교회 2026~2027 여와나(Awana) 정류 사역 개강	콜로라도 뉴라이프 선교 교회	오후 19:30~ 21:00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 콜로라도 뉴라이프 선교 교회 본당 (15051 E Iliff Ave, Aurora, CO 80014)
글로벌어린이재단 제28차 정기총회 (1일차 개막)	글로벌어린이재단 (GCF) 본부 임원회 및 샌디에이고 지부	종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힐튼 샌디에이고 미션밸리 (901 Camino del Rio South, San Diego, CA 92108)
장편 선교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전국 극장 개봉	SBCM KOREA (세계로방송)	종일	전국 주요 영화관 상영관

2026년 9월 11일(금), 국내외 복음주의 선교단체들이 학술 세미나, 차세대 말씀 훈련 개강, 디아스포라 구호 총회, 선교 다큐멘터리 영화 개봉 등 각 분야별 공식 사역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KEF)는 9월 11 일 오전 7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백석대 학교회 교육동 10층 아트홀에서 월례 조 찬기도회 및 학술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 이다. 이번 모임은 '순교자인가, 침략자 인가? 로버트 J. 토마스 160년, 한국교회

가 다시 묻는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1부 조찬기도회에서는 장종현 목사(백석대 학교 총장)가 설교를 전하고 배분철 교 수(경결대학교)와 이은선 교수(안양대학 교)가 공동기도를 인도할 예정이다. 이어 지는 주제 발표회에서는 유해석 교수(총 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주임교수)가 '로버 트 J. 토마스: 순교자인가, 침략자인가'를 주제로 발제하며, 박명수 교수(서울신학 대학교 명예교수)가 '19세기 후반 동북 아 국제정세와 제너럴서먼호 사건'을 발

표할 예정이다.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 소재 콜로라 도 뉴라이프 선교 교회는 9월 11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2026-2027 학년도 '여와나(Awana)' 차세대 선교·말씀 훈련 사역을 개강할 예정이다. 미취학 아동부 터 유초등부, 청소년부를 대상으로 진행 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개강 이후 2027 년 5월 21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정규 운영될 예정이다.

글로벌어린이재단(Global Children Foundation)은 9월 11일부터 미국 캘리 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힐튼 샌디에이고 미션밸리 호텔에서 제28차 정기총회 공

식 회무를 개막할 예정이다. 이번 총화에는 전 세계 24개 지부 대표단이 참석하 며, 2027년도 58개 국제 구호·선교 협력 기관 배정 예산(\$720,000) 집행 승인 및 지부별 사업 결산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 정이다.

SBCM KOREA(세계로방송)가 제작한 선교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가 9월 11일 전국 주요 극장에서 개봉할 예 정이다. 러닝타임 97분(전체관람가) 규모 의 본 작품은 1950년대 후반 병상 회심 이후 불광동 천막교회 개척 시기 등 초 기 오순절 선교 운동의 청년기 기록을 중심으로 상영될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NGO

2026년 9월 11일 기독교 NGO 주요 일정표			
행사 및 소식명	주최 및 주관	시간	장소
블루웨이브 뮤직페스티벌 2026 (1일 차)	한국컴패션	9월 11일(금) 19:00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안재우 소장 초청 월드비전 나눔 콘서트	월드비전 뉴질랜드(World Vision New Zealand), 웰링턴 그리스도의편지교회	9월 11일(금) (현지 시각)	뉴질랜드 웰링턴 그리스도의편지교회

국제어린이양육기구 한국컴패션과 월 드비전 뉴질랜드가 오는 2026년 9월 11 일(금) 각각 서울과 뉴질랜드 웰링턴에 서 나눔 문화를 주제로 한 대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컴패션은 11일 오후 7시 서울 송 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블루웨 이브 뮤직페스티벌 2026(BLUE WAVE MUSIC FESTIVAL 2026)' 1일 차 행사 를 진행한다.

이날 공연에는 YB(윤도현밴드), 심어 송라이터 홍이삭, 이민혁이 무대에 올라 라이브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무대 프 로그램 외에도 한국컴패션 홍보대사인 가수 김범수의 나눔 스피치, 컴패션 지

원을 통해 자립한 수혜 졸업생의 현장 증언 스피치가 함께 진행된다. 행사장 외부에서는 결연 신청 부스와 브랜드 체 힘 부스, 컴패션 스토어가 함께 가동될 계획이다.

월드비전 뉴질랜드는 현지 시각으로 같은 날 오후 7시 뉴질랜드 웰링턴 그리 스도의편지교회에서 현지 한인 교민을 대상으로 '월드비전 나눔 콘서트'를 개 최한다. 이번 행사는 월드비전 홍보대사 로 활동 중인 한국복화술협회 회장 안 재우 소장의 복화술 단독 공연으로 꾸 러지며, 현지 교회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결연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다니엘 최 기자

미국 남침례회 국제선교부, 캐나다 원주민 선교 위해 첫 림비족 부부 파송

아메리카 원주민 정체성 바탕으로 캘거리서 교회 개척 주도 과거 기독교계 역사적 상처 극복 전략 추진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 은 남침례회 국제선교부(IMB)가 캐나다 의 원주민 단체인 파스트 네이션을 섬기 기 위해 기관 역사상 최초로 아메리카 원 주민 림비족 출신의 선교사 부부를 파송 했다고 9월 9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알제이 록리어와 엘레이나 록리어 부부 는 어린 아들 에스라와 함께 올여름 캐나 다 앨버타주 캘거리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들은 향후 해당 지역의 파스트 네이션

공동체 내에서 교회 개척 전략가로 본격 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남침례회 국제선교부에서 농촌 및 미 전도 종족 사역을 총괄하는 제프 클라 크 선교사는 파스트 네이션이 비서구적 인 전통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 다. 그는 원주민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역 은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온전히 고려한 선교학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캐나다의 모든 보호구역에 지역 문화와 어우러지

는 복음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최종 목 표라고 밝혔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림비족 출신인 록리어 부부는 자신들의 아메리카 원주 민 유산과 문화적 경험을 선교 사역에 적 극적으로 접목할 계획이다. 기독교 복음 의 불모지로 여겨지는 원주민 사회에서 같은 원주민이라는 공감대는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강력한 감정으로 작용할 전 망이다. 다만 이들 부부가 실제 선교지에 도착하기까지는 수년에 걸친 자연이 있었 다.

알제이 록리어 선교사는 당초 2020년 파송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으로 계획이 전면 중단됐다. 2022년 결혼 이후 건강 문제로 일정이 거듭 연기 됐고 2025년 아들을 출산한 뒤 2026년에 이르러서야 캐나다 캘거리에 입국할 수 있었다. 그는 수많은 자연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기에 파스트 네이션을 섬기며 아메리카 원주민으로서의 경험을 나누게 된 것이 완벽한 시기라고 전했다.

이번 록리어 부부의 파송 사역은 남침 례회 국제선교부를 비롯해 북미선교부 (NAMB)와 캐나다 전국 침례교 협의회 (CNBC)가 원주민 신자들을 선교의 주역 으로 동원하기 위해 체결한 폭넓은 파트 너십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폴 치트우드

남침례회 국제선교부 총재는 복음을 접 하지 못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 원 주민 신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고 강조하며 미국 내 수백 개의 원주민 교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사역자들이 배 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에 투입된 선교팀 앞에는 과거 기 독교 기관들이 원주민을 상대로 저질렀 던 강압적이고 부당한 대우라는 뼈아픈 역사적 장벽이 놓여 있다.

이러한 과거의 상처는 현재까지도 원주 민들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데 있어 오랜 장애물과 불신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송된 선교사들은 단기적 인 선교 성과 창출을 지양하고 원주민 커 뮤니티 내부에서 장기적이고 진정성 있는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사역의 초점을



IMB 선교사 RJ 록클리어(RJ Locklear)와 엘레이나 록클리어(Elayna Locklear)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인 림비족(Lumbee)에 속해 있다. ©IMB Photo

맞추고 있다. 이들은 세대를 거쳐 원주민 들의 고유한 문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다 가가며 과거의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장기적 선교 비전을 제시했다. 다니엘 최 기자



UBF 각 지부, 여름수양회서 복음의 은혜와 공동체 사랑 나눠

한남·용인·울전1부·관악5부·남산·광운, 말씀과 삶의 고백으로 신앙 돌아봐… 학생 참여·세대 간 교류 확대

대학생경원기선교회(UBF) 각 지부가 여름수양회를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나눴다. 한남·용인, 울전1부, 관악5부, 남산, 광운 지부는 말씀 강임의 소감 발표, 찬양과 공연 등을 통해 신앙을 돌아보고 공동체의 교제를 다졌다. 학생들이 말씀 강사와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하고, 청년과 장년이 삶에서 경험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남·용인, '하나되게 하소서'… 서로의 삶 이해하며 연합

한남·용인 지부는 7월 11~12일 경기도 광주 진새골 사랑의 집에서 '하나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연합 여름수양회를 개최했다. 신영화 목자가 진행한 몸동작 프로그램으로 첫 시간을 열었으며, 참석자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어색함을 풀고 교제를 시작했다. 두 지부는 말씀과 합창, 레크리에이션, 소감 발표 등 각 순서를 함께 준비했다.

첫날 오후와 둘째 날 오전에는 8명이 삶의 소감을 발표했다. 박주상·송민규·박소망·박하은 형제자매는 사회에 적응하며 겪은 고민과 아픔, 그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눴다. 이태베카 목자는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하고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동역자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버지께 대한 묵은 감정이 풀렸다고 고백했다. 황민은 목자는 개혁과 공부·방학원 사역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섬김을 배워 가는 과정을 전했다.

오명환 목자는 30대 초반 안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견디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경험을 나눴다. 서요나 선교사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발표자들의 아픔과 고민에 공감하며 함께 기도했다.

첫날 저녁 이예레미야 목자는 '하나되게 하소서'(요 17:11)를 제목으로 예수님을 중심에 둔 연합과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했다. 둘째 날 안스데반Jr. 목자는 '율법책을 가르쳤더라'(대하 17:9)를 통해 여호사밋이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한 일을 조명했다. 세례·성찬식도 진행됐다. 지부 측은 "한남과 용인 동역자들이 수양회를 통해 더 깊게 만나고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울전1부, '그가 오신 이유'… 학생들이

말씀 강사로 참여

울전1부는 8월 7~9일 MG손해보험연수원에서 '그가 오신 이유'를 주제로 여름수양회를 개최했다. 죄인을 부르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며 제자로 세우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준비과정에서는 학부생들이 말씀 강사로 참여해 인생 소감을 작성하고, 성경공부와 정기적인 리허설기도 모임을 통해 메시지를 다듬었다.

장다니엘 목자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 9:9-17)를 제목으로 개회 말씀을 전했다. 학생회장 정태영 형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눅 19장)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폴란이우주 목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장)를 통해 십자가의 대속을 조명했다. 김서진 자매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삶과 미래를 주님께 맡기겠다고 고백했다.

마지막 날 이담대 목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24-31)를 통해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했다. 소감 발표와 팀 코칭, 찬양·드라마·공연도 이어졌다.

◆관악5부, '공화과 용서, 사랑의 십자가'… 청년 눈높이로 준비

관악5부는 '공화과 용서, 사랑의 십자가'를 주제로 4박 5일간 여름수양회를 진행했다. 마태복음에서 배운 예수님의 공화과 자비를 깊이 알아가고자 마련한 집회로, '구하라·찾으라·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에 따라 두세 명씩 기도 짝을 이뤄 준비했다. 20~30대 목자들과 두 차례 논의하며 청년·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번 수양회에서는 처음으로 학생 강사를 세웠으며, 물놀이 등 참여형 활동을 마련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역할이 물리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말씀 전달을 위한 음향 시설도 보강했다. 지부 측은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린 활동을 돌아보며 "학생들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적극 참여하여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라고 밝혔다.

소감 발표에서는 청년들이 자신의 어려움과 신앙의 변화를 나눴다. 한 참석자는 경제적 성공을 쫓다가 절망을 겪은 뒤 약 4년 만에 성경공부를 다시 시작한 과정을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죄책감과 내면의 상처 속에서 말씀을 통해 감사와 평



2026 한남·용인 연합 여름수양회를 마치고. ©UBF



관악5부 여름수양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UBF

안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신앙 안에서 성령의 2세들도 삶의 고비마다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나눴다. 연극에서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변화되는 과정을 그렸으며, AI 영상도 활용했다.

마지막 날에는 김태용(요한) 목자를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하는 안수식이 열렸다. 필리핀 은행 지부로 발령받은 그는 출국 일정이 연기되면서 안수식에 참석한 뒤 당일 출국했다. 수양회 후 온라인 설문에서는 십자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강사들의 준비에 대한 소감이 이어졌다. 학생들 가운데는 다음 해에도 4박 5일 일정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지부 측은 전했다.

◆남산, 하나님 나라의 기쁨 나누며 세대별 공동 참여

남산 지부는 7월 24~26일 강화 그레이스힐에서 188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여름수양회를 개최했다. 말씀 강임의 '아버지의 사랑'(눅 15:11-32)과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부 측에 따르면 리더의 90% 이상이 말씀을 묵상하며 소감을 작성했고, 약 30명씩 그룹을 이뤄 발표했다.

이번 수양회는 청년과 대학생, 장년 리더들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진행까지 함

께 맡은 점이 특징이었다. 첫날 저녁 청년 장한 2세들도 삶의 고비마다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나눴다. 연극에서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변화되는 과정을 그렸으며, AI 영상도 활용했다.

둘째 날에는 그룹별 소감 발표에 이어 장년 모임이 준비한 '토크 송 콘서트'가 열렸다. 이주화전기영 목자의 사회로 양나라신요셉·신미희·채대호 목자가 각자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노래를 나눴다. 저녁에는 청년 모임의 '도전해 봄,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묵학기 동안 경험한 신앙의 이야기를 전했다. 대표 소감 발표도 이어졌다.

마지막 날에는 장년 모임이 '천국을 맞본 사람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최백열 목자가 요한복음 2장 1-11절 말씀을 전했다. 지부 측은 집을 떠난 둘째 아들과 집에 남아 있던 첫째 아들 모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배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년과 청년, 대학생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 각각 자기들만의 색깔과 언어로 멋진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다 함께 나누는 천국잔치였습니다"라며, 그 사랑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가져와주실 자라기를 기도했다고 밝혔다.

◆광운, 'Jesus Christ, Save Us'… 복음



2026 울전1부 여름수양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 ©UBF



강당을 가득 메운 2026 남산 여름수양회 현장의 모습. ©UBF



2026 광운 여름수양회를 마치고. ©UBF

통해 구주와의 만남 강조

광운 지부는 7월 24~26일 양평 KOBACO 연수원에서 'Jesus Christ, Save Us'를 주제로 여름수양회를 개최했다. 광운 지부 45명과 한빛 글로벌 UBF 8명 등 총 53명이 참석했다. 지부 측은 학생들이 모임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 복음을 통해 구주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데 준비의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수양회에 앞서 3주 동안 주일예배에서 창세기 특강을 진행하며 창조와 하나님의 사랑, 죄와 회복, 심판과 구원을 살폈다. 7월부터는 오후 9시 30분에 특별기도회를 열었다. 학생들도 8주간 찬양을 준비하며 수양회를 함께 섬겼다. 개회 말씀을 요한복음 3장을 중심으로 구원자 예

수님을 만나는 집회의 취지를 전했다.

첫날 김경민 목자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마 9장)을 통해 죄 사람의 사랑을 전했다. 한빛 글로벌 UBF 참석자들의 인생 소감 발표와 윤리브가 목자가 인도한 저녁기도회도 이어졌다. 둘째 날 권민우 목자는 '정죄치 않는 예수님'(요 8장)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장) 강임에서는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했다.

마지막 날 주일예배에서는 '주는 그리스도'(마 16장)를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르는 믿음을 살폈다. 이후 참석자 5명이 이틀 동안 준비한 소감을 발표했다.

장요한 기자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음악을 마주하며

저는 예배에 대한 논쟁이 늘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지금 우리가 가진 예배음악의 고민과 문제 가운데서도 위안과 희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국 목사

인간은 종교음악의 역사를 기록해온 동안, 그것을 둘러싼 논쟁도 함께 기록해 왔습니다. 중세 시대에서는 예배음악(liturgical music)에서 어떤 언어와 멜로디를 사용하느냐를 둘러싼 의견 충돌이 불붙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언어와 멜로디어야 하는가, 아니면 로마 가톨릭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어야 하는가? 르네상스까지 이런 멜로디 중 일부는 어떤 이들에게는 난해하게 들리는 대위법이 포함되고 또 요약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후에도 순전한 인간의 목소리 만이 기독교 예배의 유일한 악기여야 할까요? 교회에서 파이프와 현악기와 트럼펫을 포함하는 급진과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시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은 디오니시안 의식(그리스의 주신제)과 흡사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흐에 대한 비평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음과 지나치게 복잡한 모습! 자연스럽지 않고 너무 인위적인 면들! 그러나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심플하고 감미로운 멜로디 라인이지, 이렇게 뻣뻣한 대위법은 아닙니다. 지금은 자연을 반영하는 음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너무나 많은 강력한 의견들이 있었고 오늘 날에도 그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음악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는 강력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음악이 예배에 쓰이고, 믿는 자들이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의 논쟁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상황에 따라, 그 당시에 누가 담당하고 붓을 들고 있었는가에 따라, 그리고 누구의 정치적 목소리가 중요한가에 따라서 매우 다른 음악 신학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세계에서 우리는 옛날보다 쉽게 음악에 접할 수 있습니다. 이곳저곳 걸어 찾아다니거나, 라디오나 mp3 플레이어를 틀면, 모차르트가 그의 짧은 전 생애 동안 들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음악을 하루 저녁에 들을 수 있습니다. 바

흐일까 브람스일까, 찬송가일까 합합일까? 팔레스트리나일까 팝일까? 우리 인간은 우리가 만드는 음악을 통하여 뜻을 나타냅니다.(의미를 둔다). 우리는 마치 유전자의 일부인 것처럼,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태어난 소리를 통하여 세상에 대한 우리의 깊은 비전을 표현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특정한 음악에 끌리고 매료되기까지 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음악 입문서의 한 곡이든지, 초보자를 위한 바흐 곡이든지, 아니면 학교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외워 부른 캐럴이라든지, 이런 음악을 할 때 저는 그날과 계절의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리학적 혹은 심리학적인 애착과 선호가 제가 그 음악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그 음악을 듣거나 연주할 때 맥박이 뛰고 가슴이 흥분으로 부풀어 올랐던 것을 기억할 뿐입니다.

신학, 육구, 예술, 의마: 이것들은 확실히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갈등하던 어거스틴 까지도 불안한 마음에 부르는 찬송에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마음은, 다른 음악으로, 다르게 심을 얻습니다. 또한 Daniel Levitin도(in his 2006 book This is Your Brain On Music) 음악에 대한 취향

은 이미 모태에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주일 날 교회에서 같은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찬송과 노래가 불리는가에 대하여 충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함께 살 것이라면, 우리가 서로의 전심(whole self)에 대하여 배울 것이라면, 이제는 음악을 중심으로 그 의미에 대하여 설득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난 이게 좋아' 혹은 '난 이게 싫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음악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연계성, 즉 소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음악이 공동체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식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느끼는 방식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팔레스트리나의 모테트를 들을 때, 우리는 연주하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어떤 거대하고, 아름다운 구조로 상호 연결된 완벽한 교감의 일부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블루스(the blues)의 재즈 리프(jazz riff)도 이와 같아서, 색소폰 연주자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황홀한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임스 맥밀란의 십자가상의 절언에서는 적막함과 황폐함

을 교감할 수 있을 것이고, 반면에 쉽게 반복되는 후렴의 포크 발라드(the folk ballad)는 연습 없이도 노래할 수 있어서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그저 은근 슬쩍 당기는 음악으로 다정함을 교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은 서로의 음악을 듣고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더 뛰어난 방법은 없습니다. 때때로, 예배의 시간이 그 공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공동체에서는 그러한 성찰을 하기에는 예배가 너무 민감하고 신중한 부분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것은 음악은 단지 악보 위의 그려진 단순한 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며, 그 행하는 과정은 따뜻하고 관대하며 친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과 소리와 음악을 마주

할 때, 우리의 관점과 시각을 좀 더 주의하여 유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평가해보고, 축하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노래와 사뭇 다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때, 우리는 진실로, 어떤 말로 다할 수 없는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행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천사들의 합창을 듣고 이해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Martin Jean is director of the Yale Institute of Sacred Music,

Professor in the Practice of Sacred Music, and Professor of Organ.

He has performed widely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글쓴이 By Martin Jean

번역 김영국 목사

◆김영국 목사

대광교와 한양대학을 졸업하고 1974년 미국으로 이주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신학과 음악목회를 전공하였고 척 스윈돌 목사와 그의 음악목사인 하워드 스티븐슨의 영향을 받았으며 27년동안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의 큰빛한인교회서 사역했다. 지금은 음악목회연구원을 통해 그 사역을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마음 키우기 2



이선종 찬양예배자

찬양자는 제3의 직업을 가진 이다. 직업을 먹고사는 기본적 일을 뜻한다.

요즘 찬양자를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 삼는 분은 그리 많지 않다. 풍요와 여유를 보

장하는 호사로운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호사로운 보상을 보장하지 않아도 이 길에 미친 사람은 많다. 그 영향력은 보상을 뛰어넘기에 그렇다. 가끔 취미와 호기적 추구에서 끝나는 이도 있지만 노래와 찬양에 취향을 가진 자들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선물이 있다.

먹고사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 때는 이 일은 매우 인기 있었다. 하지만 가진 자들이 예쁜 여자의 환심을 사는 것을 본 야망 있는 소년의 시대인 1980년대에 이르자 먹고사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향

은 마치 오래전부터 진리처럼 굳어진 정의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의는 모든 세상, 나라와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되어버렸다.

오늘날 부유하지 않은 교회는 교인도 공동체도 조직도 가르치는 자도 배우는 자도 그리고 거기서 찬양하는 자들도 부실해 보인다.

과연 그러한가? 준비되지 않은 찬양을 하는 게 부실한 것이지 노래 잘하고 표현 잘하고 스피커 좋고 어쿠스틱 능력이 있는 악기주자가 없어서 부실한 게 아니다. 하지만 어지간한 교회 사이즈가 되면 전문 연주자들과 이름난 찬양자들이 찾아온다.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버린다.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을 때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난리가 났었다. 이방 민족들도 우리 조선인들은 가무에 능하고 흥을 좋아한다고 기록한다. 이 흥이 돈이 되는 세상에 산다. 흥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돈이 마음을 움직

이는 시대에 산다.

신약성서에는 주님과 제자들이 찬양했다는 기록을 찾기 어려운데, 마태복을 26장 30절과 마가복을 14장 26절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는 내용이 전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양했다. 기타와 드럼과 마이크가 없었을 것이다. 모르겠다. 작은 현악기와 리듬 악기들이 동반될 수 있겠으나 우리는 그 시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자료를 그리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성서에 찬양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면 오늘날 찬양과 찬양자들의 마음밭이 비교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찬미'라고 번역된 '홈네오'로 이 단어가 신약에 4번 나오는데 주석에 의하면 시편 113-118, 136편을 인용한 것이라는 설들도 있다. 아마 주께서 당시 보편적으로 외우고 노래하던 시편 찬미를 했던 것 같다.

117편은 매우 짧지만 아름다운 찬양이다. 이들 시편에는 인자(사랑), 즉 '헤세드'

가 계속해서 나온다. 이러한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다.

또 신약에서 '홈네오' 말고 보통 '찬양'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올로게오'로 문자적 의미는 '좋은 말을 하다'이다. 신약에서 동사형이 44번, 형용사가 8번, 명사형이 16번 나오니 거의 70여 회 나온다. 흥미로운 것은 로마서 1장 25절과 9장 5절은 '찬송'과 '찬양' 둘 다 '아멘'을 붙인

다.

또 신기한 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많은 제자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술하며 누가복음은 끝난다.

누가는 찬양으로 그의 복음을 마무리하는데, 연결해서 쓴 사도행전은 '120여 명이 마가의 집 2층 홀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행 1:14)라고 기록한다.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한 후, 이제 모든 것이 만천하에 그 진리가 선포되고 눈과 귀가 있는 자들이라면 이 일이 사실인 것을 알았을 것인데 그들 무리가 적지 않았고

성령이 그들에게 부여했을 때 그들의 남은 삶은 그들의 능력과 부와 자기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능력을 얻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했다.

주가 주신 나라가 이제 모든 삶의 가야 할 목적이 되었다. 기도와 찬양은 그러한 가치와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찬양이 예전처럼 일주일에 한 번 평화로운 마음의 위로를 주거나 설교를 보조하는데서 멈춘다.

무엇을 잃었는가? 마음을 키우고 영을 세우고 하나님과 깊이 교감하는 순간순간에 사는 것을 잃었다.

그분이 가지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

대하고 크신지 모르고 작은 자신을 가져와 예배하는 데 익숙하다. 가진 것과 위장된 평화가 자신의 능력인 줄 착각한다. 자신의 능력도 자신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일이 너무 늦지않게 시작되어야 한다.

찬양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신다. 우리는 참으로 행운이 있어서 그 찬양하는 자들이다. 이제 주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된다. 삶으로, 생활 속으로 다시 끌어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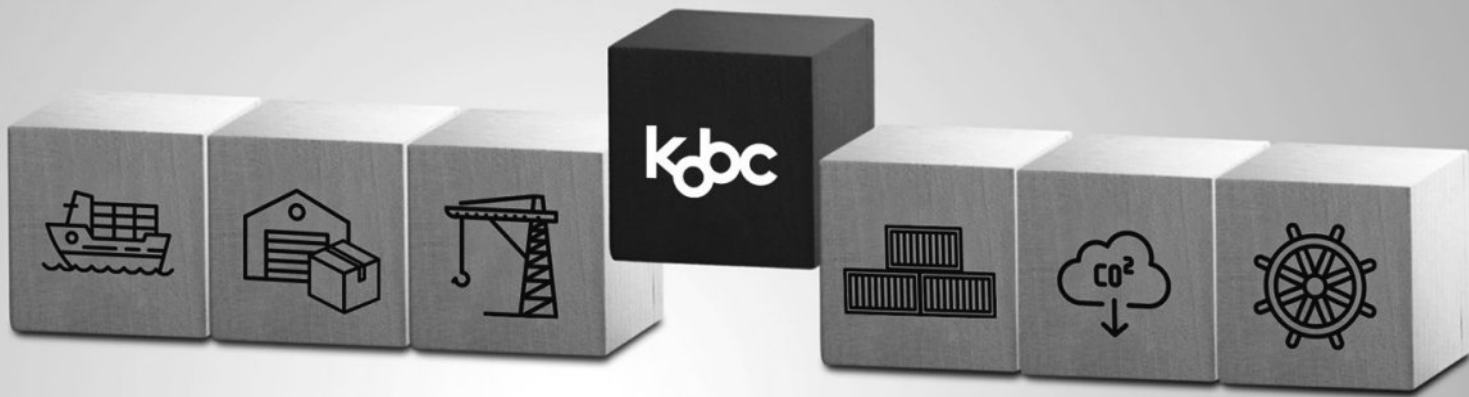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일주일에 한 번 불리는 회중 찬양은 전문 찬양자들의 선곡과 달라야 한다.

◆이선종 찬양예배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BA)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Master Christian Music(MCM)
Korea Presbyterian College of America(M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ThM) 수료
Cantor, Music Pastor / 카리타스합창단 음악감독
VKCC 지휘자 / 성서 번역가

kobc 한국해양진흥공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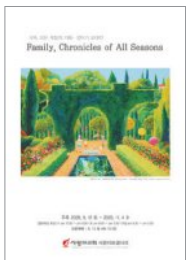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가족과 행복’ 그리는 김덕기 작가 초대전… 사랑아트갤러리서 개최



(Family, Chronicles of All Seasons)》이

오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사랑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초기 작품부터 도자 작품, 그리고 200호 규모의 대작 ‘사계절 연작’ 4점을 포함해 다채롭고 풍성한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회고전 형태는 아니지만, 김 작가의 예술적 변천사와 다채로운 재료의 스펙트럼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김덕기 작가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보성고등학교(간송문화재단)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작품 활동을 병행하다 전업작가로 전환했다. 현재는 고향인 경기도 여주 작업실을 기반으로 활발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통 동양화의 먹과 한지에서 출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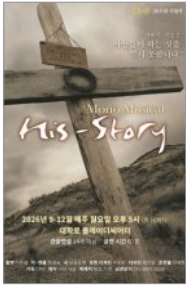
김 작가는 캔버스와 유화, 아크릴 등으로 매체를 확장하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색채 회화 세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크리스천 작가로서 ‘가족’과 ‘일상의 행복’이라는 일관된 주제를 따뜻하고 서정적인 조형 언어로 풀어내며 대중적인 인지도와 탄탄한 미술시장 기반을 함께 갖춘 대표적인 중견 구상작가로 평가받는다. 미술인

선교단체인 아트미션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국내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 해외 아트페어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연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과천), 서울시립미술관, 포스코미술관, 한국은행(한국은행 소장 미술품 100인 100선 선장) 등 국내 주요 기관은 물론 아랍에미리트 사라야 빈

트 합단 알 나얀 재단, 독일 디터 홀츠 컬렉션, 홍콩 제프 강 컬렉션 등 해외에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오픈예배는 9월 12일(토)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관람 시간은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3시, 주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까지다(월·화·목·금요일 휴관). 노형구 기자

기독교 문화사역 CMP, 모노뮤지컬 ‘His-Story’ 대학로 상연

기독교 문화사역 CMP(Christian Musical Production)와 극단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룬 1인 모노뮤지컬 ‘His-Story’를 대학로 플레이 더 씨어터’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제작진은 9월 첫 주 공연을 마친 데이



어, 오는 9월 14일과 28일 화차에 언론사 기자를 초청하는 시사회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관람 기자에게는 1인 2매의 초대권이 제공되며, 공연 종료 후 연출 및 출연진과의 질의응답(Q&A)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단, 21일 공연은 극장 사정으로 취소됐다. 뮤지컬 ‘His-Story’는 예수의 탄생부터 십자가 사건까지의 여정을 담은 작품이다. 뮤지컬 작가 역할을 맡은 단 한 명의 배우가 60여 분간 8곡의 노래와 1곡의 랩, 연기를 혼자 소화하며 동방박사,

람비, 요셉, 세례요한, 유다, 헤롯, 바라바 등 총 9개의 인물을 입체적으로 연기한다. 작품은 대부분 쓰는 작가가 한 목사로부터 예수님 주제의 공연을 의뢰받아 1인극 형태의 독특한 뮤지컬을 구상하고 완성해 가는 과정을 그린다. 특히 1인극 특유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관객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거나 무대로 직접 불러나 배우로 참여시키는 등 관객 참여형 방식을 적극 도입했다. 제작진 측은 “기독교인에게는 예수 그

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비신자에게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는 전도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연은 최광균 연출이 대본과 연출을, 남궁은영 작곡가가 음악을 맡았으며, 배우 이준성이 단독 출연한다. 티켓은 ‘Nol 티켓’을 통해 예매 가능하며, 현장 구매가 3만 원, 예매가 2만 원, 전도대상자 동반 시 2인 3만 원의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관람 및 기자 초청 신청 문의는 CMP(010-9001-5538)로 하면 된다. 노형구 기자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울린픽’과 함께 2026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 성료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관장 김선정) 소속 상록 스포츠단 ‘상록 포레스트 핸드볼팀’이 지난 6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된 ‘2026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에 출전했다. 이번 리그는 단순한 승패와 순위를 넘어,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 진행됐다. 선수들은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며, 스포츠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26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 결승전
‘상록 포레스트 핸드볼팀’ ©단체 측 제공
다니엘 최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05:00	00 TV새벽예배 일산광림교회 40 하나님의 손길	2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2026년 09월 11일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9월 11일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TV강단 연동(김주용) 30 TV강단 한마음(김승룡)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06:00	00 윤호균목사의 CTS 부흥회 50 신강예세이	10 GOODTV 오늘의 기도 20 비전설교 오투 (김은호) 50 GOODTV NEWS	10 [말씀] 감다워 목사(선한목자교회)(139회) 50 [말씀]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430회)	00 생명의 양식 신나는(이정기) 30 세메인의 연약 (소강석)(955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성경 속 인물사
07:00	00 CTS뉴스 20 생명의 말씀 한국중앙-임석순 50 생명의 말씀 용인비전-신용수	1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20 행복한 쉼터 LA새생명비전(강준민) 50 행복한 쉼터 왕성 (김요나)	30 휴먼네컷(59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746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839회)	00 만나 워십 감병삼 목사
08:00	20 네 영혼의 찬양 Praise 40 서정희의 매일성경(135회)	2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30 다규 더 로드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9월 11일 20 [말씀] 이종훈 목사(구교교회)(193회)	00 하나님의 음성(28회) 20 CBS 성서학당 (신우인)(3590회) 민수기 23강	00 비전메시지 하늘비전교회 장종만 목사 30 비전메시지 두란노교회 이상로 목사
09:00	00 백설기(71회)	00 사랑의 메시지 여의도침례 (국영호) 30 행복한 쉼터 순복음축복 (오영대)	00 CGN 비전특강(702회) 4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5회)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2(42회)	10 새롭게하소서(11117회) 박경임 선교사 2부	00 THE 공금(37회) 하나님 아버지 40 성경 속 인물사(23회) 롯, 끝까지 떠나지 않은 여인
10:00	00 7000마라톤 스페셜	00 매일 주와 함께	20 미션로그 - 끝나지 않은 선교이야기(8회) 50 청춘찬양단(2회)	00 CBS NEWS 10 20 더 플랑(181회) 50 살롱 샬롱(48회)	00 강연쇼 통(79회)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센스 신약
11:00	00 한국교회를 논하다(604회) 50 김지연의 중독전쟁(12회) 15세	00 행복한 쉼터 육길 (임재호) 30 행복한 쉼터 제주통솔 (박창건)	10 [말씀] 이재훈 목사(은누리교회)(689회) 50 Q&A 107 소요리문답(25회)	00 울포원(771회)	00 소문난 성경교실(754회) 이기철 목사 첫 번째 보충 4강 은혜로 읽는 창세기 : 총장리 2 30 김재원의 광야예찬(31회) 텐트 폴 하나로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라제간 회장
12:00	00 CTS뉴스 30 생명의 말씀 대치순복음-한별	00 GOODTV NEWS 20 이영훈 목사의 힐링 스토리 30 오병이어 금요성회	1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5회) 2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가족교회)(254회)	00 TV강단 구세군대한병원 30 TV강단 민리현성결(조준철)	20 말씀의 창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 50 말씀의 창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
13:00	00 생명의 말씀 대구동산-권성수/문대원 3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40 서정희의 매일성경(135회)	0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115회) 2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시즌2(71회)	00 잘 믿고 잘 사는 법(353회) 2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13회)	20 글로벌 신앙토크쇼 앳웃앳(62회)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14:00	00 [생방송]Calling GOD(2568회) 50 더 메시지 시즌1 김성교 선교사,임형규 목사	00 GOODTV 특별간중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9월 11일 20 [말씀] 양형주 목사(대전도안교회)(12회)	00 말씀의 힘 신일(배요한) 30 새롭게하소서(11491회) 가수 이지현 1부	00 청운교회 주일예배실황 이필산 목사
15:00	40 7000마라톤 스페셜	00 아버지 나의 아버지	0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665회) 40 생명의 삶 2026년 09월 11일	20 CBS 성서학당 (최주훈)(4555회) 영화로 읽는 그라스도의 생애 19강	00 2026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특별새벽기도회
16:00	30 생명의 말씀 원주중부-김미열	00 사랑의 메시지 분당선교 (윤귀현) 30 행복한 쉼터 송진 (권준호)	00 하용조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64회) 4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5회) 50 [말씀] 공진수 목사(목양교회)(12회)	1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109회)	00 플다보먼(35회)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 아테네, 고린도 40 성경 속 인물사(23회) 롯, 끝까지 떠나지 않은 여인
17:00	00 수영로의 시간 성령집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행복한 쉼터 군포성산 (김자현) 30 신의 2수 40 아베스의 기도	3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438회)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842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2044회) 50 행복다이아리(665회)	00 말씀의 창 아신큰빛교회 김성권 목사 30 말씀의 창 LA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18:00	00 백석의 시간(134회) 정종현 목사 3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백석대학교 진리의 시간 정종현 4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다음세대 목회전략 콘퍼런스(4회) 50 2026 KOSTA WORLD IN SEJONG(4회)	00 TV강단 열방(현철호) 30 TV강단 세종새소는(최병남)	00 김재원의 광야예찬(31회) 텐트 폴 하나로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라제간 회장 50 복음으로 미래를 열다(3회)
19:00	00 찰스스탠리 목사의 주님의 손길 30 생명의 말씀 용인기쁨과-정의호	00 사랑의 메시지 군포제일(권대진) 30 사랑의 메시지 새은혜 (형형택)	50 2026 KOSTA WORLD IN SEJONG(4회)	00 TV강단 감남중앙(장찬영) 30 TV강단 베다니(곽주환)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20:00	00 생명의 말씀 은평성결-유승대 30 생명의 말씀 포도나무-여주봉	00 더 메시지 강문종 10 예배실황 지구촌 (김형석)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9월 11일 20 THE NEW 하늘빛방기(47회)	00 CBS 비전특강 박관 목사의 성서적 전인치유 50 최서형의 생애에 이르는 길(14회)	00 정종현 목사의 비전메시지(3회) 40 성자가 좋다(546회) 사해, 베다니 세레데
21:00	00 박세현의 크로스뷰(28회)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성 3분 미라클 30 서정희의 매일성경(135회) 50 CTS뉴스W	10 행복한 쉼터 전주남성 (안호관) 40 GOODTV NEWS 12세	00 더사랑의교회 주일예배 2026년 09월 11일	00 CBS 성서학당 (신우인)(3590회) 민수기 23강 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51회)	10 아서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76회)
22:00	20 생명의 말씀 군자대헌-이희수 50 바이블 프로젝트	00 오룬교회 금요철야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9월 11일 30 믿음의 씨앗 교회교회와 함께(51회)	00 CBS NEWS 10 20 울포원(770회)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423회) 20 금요성령집회 제자광성교회
23:00	00 윤호균 목사의 CTS금요철야예배(1088회)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631회)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사론의 꽃 필 때	10 크레이그 그로벨의 공금합니다, 하나님(2회) 40 생명의 삶 2026년 09월 11일 5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5회)	20 CBS 금요철야예배 (새메덴교회)(916회)	10 금요철야예배 수영로교회
00:00	00 Calling GOD(2568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명사들의 명강 40 선교의 땅, 우간다를 가다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9월 11일 20 (2026 정신건강 세미나)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9회)	10 새롭게하소서(11117회) 박경임 선교사 2부	00 새메덴 철야예배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센스 구약
01:00	00 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70회)	10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	00 다음세대 목회전략 콘퍼런스(4회) 40 [말씀] 권혁민 목사(씨드교회)(203회)	00 신위의마를 말씀 (김영준)(299회) 50 사랑의 말씀 (오정현)(1068회)	00 비전메시지 뉴욕우리교회 조원태 목사 50 라바이즈 워십
02:00	00 TV찬양예배 한성교회 50 위대한 발걸음	10 오! 자유여	2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566회)	40 이영훈목사의 말씀과 함께(627회)	00 말씀의 창 필그림성교회 양춘길 목사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의 나의 최고봉)(147회)
03:00	00 7000마라톤 스페셜 50 힐링송	10 GOODTV 특별간중	00 Cross Conference 2021(7회) 30 [말씀] 이건호 목사(순복음대학교)(147회)	10 새롭게하소서(11490회) 윤시영	00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실황 감다워 목사
04:00	00 하나님의 손길 2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30 CTS 경건예배 남산다눔/김태기 45 광선희 목사의 예수소망의 삶	0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인천총광 (장동민) 30 비전설교 목동제일(김성근)	10 [말씀] 박신웅 목사(열바인온누리교회)(298회)	00 CBS 성서학당 (최정환)(3521회) 사무엘서 24강 50 CBS 교회소식(1067회)	00 김재원의 광야예찬(31회) 텐트 폴 하나로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라제간 회장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